

기본연구과제 2003-16

# 백제시대 정신문화와 현대적 계승방안 연구

강 종 원

# 발 간 사

충남은 백제시대의 중심권역으로 공주와 부여는 일정기간 왕도로서 기능하였다. 따라서 충남은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하여 역사·문화자산을 보존·전승하고, 문화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의 기본 목적은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정통성을 오늘에 되살리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7개의 기능촌과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여 민족문화의 배움터로 삼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계획은 주로 외형적인 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백제사의 복원이 물질문화 중심으로 기울게 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그 결과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내면에 흐르는 사상과 정신에 대한 부분은 소홀하게 다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백제사의 복원이 본질적인 측면이 아닌 허상에 대한 복원 내지는 형식적 재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백제사 복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질문화의 내면에 흐르는 정신과 사상에 대한 이해와 구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과 사상 가운데 백제시대에 나타난 충의·절의 정신은 현재까지도 역사의 귀감이 되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백제시대 중요한 사상의 일면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국난극복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백제시대의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것을 현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백제 역사·문화의 재현 노력에 발맞추어 점차 퇴색되어 가는 백제의 정신문화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현대적 계승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를 비롯해 연구를 수행한 문화재연구부 강종원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3년 12월

충남발전연구원장

오 제 직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제 2 장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고찰 .....	4
1. 정신문화의 사상적 배경 .....	4
1) 유교사상의 발전 .....	5
2) 국가불교의 성립 .....	10
3) 도교사상의 유입 .....	12
2. 충의·절의 정신에 관한 자료 검토 .....	15
1) 한성시대 .....	16
2) 웅진시대 .....	20
3) 사비시대 .....	21
제 3 장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비교사적 검토 .....	43
1. 고구려·신라의 관련자료 검토 .....	43
1) 고구려의 충의정신 .....	43
2) 신라의 화랑정신 .....	45
2.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성격과 평가 .....	49
1) 충의·절의 정신의 시기별 성격변화 .....	49
2) 후대의 평가 .....	53
제 4 장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방안 .....	57
1. 충의·절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 필요성 .....	57
2. 충의·절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방안 .....	59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67
1. 결론 .....	67
2. 정책제언 .....	68
[참고문헌] .....	72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충남은 삼국시대 백제의 중심권역으로 2개의 고도(공주·부여)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은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하여 역사·문화자산을 보존·전승하고, 문화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1992년 11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의 기본 목적은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정통성을 오늘에 되살리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7개의 기능촌(개국촌, 왕궁촌, 전통민속촌, 장제묘지촌, 산업교역촌, 군사통신촌, 풍속종교촌)과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여 민족문화의 배움터로 삼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의도하였다. 이 가운데 7개의 기능촌은 주로 백제시대 물질문화의 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과정에 대한 것은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을 통해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내용을 검토해 보면, 물질문화 중심의 백제사 복원에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다. 박물관의 세부 전시연출 계획을 보면, 1. 칠백년 역사(제1전시실), 2. 생활문화(제2전시실), 3. 정신세계(제3전시실), 4. 백제계승(제4전시실), 5. 기획전시실, 6. 어린이체험실, 7. 전시 사인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제의 충의·절의 정신은 이들 구성 중에서 '3. 정신세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백제의 제사유적', '백제의 묘제', '무령왕릉', '천신에 대한 제사', '미륵불국토'만을 다루고 있을 뿐 어디에도 백제의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백제사의 복원이 자칫 물질문화 중심의 복원에 치우쳐 그 내면에 흐르는 사상과 정신에 대한 부분은 소홀하게 다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백제사의 복원이 본질적인 측면이 아닌 허상에 대한 복원 내지는 형식적 재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백제사 복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질문화의 내면에 흐르는 정신과 사상에 대한 이해와 구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과 사상 가운데 백제시대

에 나타난 충의·절의 정신은 후대에 역사의 귀감이 되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백제시대 중요한 사상의 일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것을 현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인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이 백제사에 대한 단순한 물질적 외형의 복원이 아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백제사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一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의 목적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조성과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의 운용 등 백제시대 역사·문화의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百濟時代 遺蹟에 대한 調査·整備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백제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주로 외형적인 복원이나 고고학적인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신문화나 민속문화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백제사의 올바른 복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만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특히 百濟史上에서 나타난 많은 역사적 사실 가운데 충의·절의 정신은 매우 두드러졌으며, 현재까지도 역사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백제사 전개과정에서 충의와 절의를 지킨 인물과 그들의 정신에 대한 재조명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동안 이들 사상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철학적인 측면에서 개념이나 본질의 해명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도 특정 인물에 국한되어 있었다. 또한 연구방법도 충의·절의 정신을 보인 인물들의 행동과 형이상학적인 의의를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 우리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이해는 소홀한 감이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는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백제사의 전개과정이라는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을 백제사의 진행과정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신에 대한 사례 분석과 함께 당시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상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들 정신문화는 거추장스럽고 고리타분하며,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전통사상은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왜 이들 정신문화가 현대에 계승되고 그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할까? 그것은 이러한 정신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존속시키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정신문화를 현대에 그대로 계승, 재적용 시키기 보다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계승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21세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백제 역사·문화의 재현 노력에 발맞추어 점차 퇴색되어 가는 백제의 정신문화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현대적 계승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백제시대의 정신문화 가운데 충의와 절의정신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현대에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기반이 되었던 정신문화의 사상적 배경을 개관한다. 둘째,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들 정신의 시대별 변화상과 그 특징을 도출한다. 셋째, 고구려·신라의 충의·절의 정신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백제의 사상적 특징을 구명한다. 넷째, 충의·절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첫째,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백제의 전통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충의·절의 정신의 사상적 배경을 추구하고,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한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시기별 변화상을 고찰한다.

둘째, 문헌 및 설화 등을 통한 관련 인물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시도한다.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을 보인 인물에 대한 심층적 연구 및 특징을 구명하고, 관련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삼국간의 충의·절의 정신을 비교·검토한다. 이를 위해 고구려 및 신라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특징을 도출하고,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특징을 고구려·신라의 특징과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넷째, 충의·절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 필요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들 사상의 계승이 현재적 관점에서 왜 필요한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합리적인 계승 및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이를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적 자료로의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하도록 한다.

## 제2장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고찰

### 1. 정신문화의 사상적 배경

한 시대의 가치관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 백제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충의·절의 정신도 백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는 백제를 비롯하여 고구려·신라가 각기 삼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삼국말기의 사상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면 백제 정신문화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백제 정신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충의·절의 정신은 주로 삼국시대 말기 고구려·신라와의 국가적 긴장관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 1) 유교사상의 발전

백제의 유교사상은 기본적으로 인의도덕의 예의사상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원시유교사상에 다시 漢代에 발전된 五行生成思想을 가미하여 經學的 思想 基盤을 완성하면서 국가적 문물제도까지 유교적으로 정비해 나갔던 것으로 이해된다.<sup>1)</sup>

그렇지만 백제에 유교사상이 도입되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근초고왕대 박사 고흥의 존재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박사는 유교를 교육하는 직제였던 것이다. 또한 성왕 19년에는 중국 양에 사신을 보내 모시박사(毛詩博士) 등을 초빙하였는데, 『毛詩』는 한나라 때의 『詩傳』을 이르는 것으로 『詩經』의 주해이다. 이후 다시 강례박사(講禮博士)를 초빙하였는데, 이때 예학의 전문가인 육후가 왔다고 한다. 이와 같이 백제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교사상의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왕은 41년 자제를 당에 보내어 국학에 입학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유학에 대한 지배계층의 인식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서 비록 백제 멸망의 모든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의자왕의 경우 부모를 효로써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서 당시에 海東 曾子로 불리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유교사상이 보편화되었으며, 또한 이를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충과 홍수가 죽음을 무릅쓰고 의자왕의 실정을 간언한 충의와 황산벌전투에서 산화한 계백의 절의는 모두 유교사상의 현재적 발현이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지배계층에게 있어서 유교이

---

1) 유남상, 「백제사상의 연구」, 『백제연구』 13, 1982, 83쪽.

념이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행동원리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인의 정절이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삼국사기』 열전 도미조에 실려있는 도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와 백제 멸망시 낙화암에서 떨어져 절개를 지킨 삼천궁녀의 이야기 등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백제사회에서 유교사상은 지배계층을 비롯한 피지배계층에게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당시 유교사상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현재 이에 대한 분명한 자료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교 교육에 대한 실상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유교에 대한 교육은 교육시설의 정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제의 경우 교육기관이 설립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그렇지만 근초고왕대 박사 고흥의 존재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근초고왕대 『書記』를 편찬한 고흥이 박사직을 띠고 있으며, 왜에 파견된 阿直岐와 王仁이 박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박사는 주로 文翰職 또는 유학과 관련된 특정한 직능을 담당하는 관제였다. 또한 이들 관제는 중국 漢代에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유교 교육을 담당하였던 직제였다는 점에서 백제 교육제도의 성립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출현은 유교 교육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유교적 정치질서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유교가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교의 일본 전수이다. 『日本書紀』 권10 응신기에 보면, 아직기와 왕인 등이 유교 경전 등을 일본에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까지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2)</sup> 이후 백제에서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五經博士 등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백제의 유교사상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유교를 교육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있었음을 알

2) 『日本書紀』 권10, 應神紀 15년 8월, 「百濟王遣阿直伎 貢良馬二匹 卽養於輕坂上廐 因以阿直岐令掌飼 故號其養馬之處 曰廐坂也 阿直岐亦能讀經典 卽太子菟道稚郎子師焉 於是 天皇問阿直岐曰 如勝汝博士亦有耶 對曰有王仁者是秀也」.

수 있다.

다음은 유교사상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중국사서 백제전에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먼저, 『주서』의 내용을 보면, 「습속은 기사(騎射)를 숭상하고 아울러 경전과 사서를 애독하니, 뛰어난 사람은 제법 문장을 엮을 줄도 알았다. 또한 음양·오행도 이해하였다.」<sup>3)</sup>라고 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이 經典과 史書를 즐겨 읽었음을 알 수 있으며, 『구당서』에는 「서적으로는 5경과 제자서 및 사서가 있으며, 표·소의 글도 중화의 법에 의거한다.」<sup>4)</sup>라고 하여 5경과 제자서, 사서를 비롯하여 중국에서 읽혀지는 서적들이 당시 백제에서도 널리 보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백제에서는 유교경전이 지배계층의 필독서였으며, 학문적 소양을 쌓는 교과서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백제의 지배계층들이 어떠한 과목을 공부하였는가는 흑치상지와 계백의 경우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다.

먼저, 흑치상지의 경우는 <黑齒常之墓誌銘>이 출토되어 그의 생애와 활동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교육과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하고 있어 참고된다.

「나이 어려 소학에서 공부할 적에 『춘추좌씨전』 및 반고의 『한서』와 사마천의 『사기』를 읽었다. 이에 탄식하여, “좌구명이 이를 부끄럽다 하였고, 공자도 역시 부끄럽다 하였으니 진실로 나의 스승들이다.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찌 많을 것인가?”라고 말하였다.」<sup>5)</sup>

즉, 흑치상지는 어려서 『춘추좌씨전』·『한서』·『사기』등을 읽었다고 하며, 공자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그는 유교경전이나 역사서등을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백의 경우에도 낮에 무술을 연마하고 밤에는 글공부를 하였다고 하였

3) 『周書』권49, 백제전, 「俗重騎射 兼愛墳史 其秀異者 頗解屬文 又解陰陽五行」.

4) 『旧唐書』백제전, 「其書籍有五經·子·史 又表疏並依中華之法…」.

5) 『역주한국고대금석문』1(고구려·백제·낙랑편), 1992, 「年甫小學 卽讀春秋左氏傳 及班馬兩史 歎曰 丘明恥之 丘亦恥之 誠吾師也 過此何足多哉」.

는데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여의 忠化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계백은 百忠 天燈山을 달려 오르내리며 무술을 연마하며, 밤에는 글을 읽었다. … 건강하고 잘 생긴 장사 한사람이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앉아서 열심히 글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의자왕은 곧 이 장사를 조정에 불러 장군을 삼았다.」

즉, 낮에는 무술을 연마하고 밤에는 글을 읽었다고 한다. 이는 『주서』나 『구당서』의 기록과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흑치상지가 어려서 공부한 내용과 계백이 밤에 읽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백제의 일반적인 교육내용 가운데 포함된 서적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흑치상지와 계백의 경우 신분이 달솔에 이른 고위귀족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지배계층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며, 특히 中國正史 百濟傳에서 전하고 있는 백제의 습속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백제사회에서 유교에 대한 교육이 일반화되었으며, 유교사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교육내용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성립에 따른 왕권의 강화와 지배이념의 성립으로 유교사상은 현실적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제례를 비롯한 충효관념이 유교의 사상체계 속으로 융합되었다.<sup>6)</sup> 이후 유교사상은 우리 전통사상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으며, 삼국시대 이래 민족의 종교이자 철학, 실천도덕이 되었다.

특히 유교에 내포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사상들은 백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것은 유교가 修身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孝悌 忠信을 강조하는 바, 孝悌는 가족규범이요, 忠臣은 사회와 국가의 규범이라는 사실이다. 아울러 유교는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인본주의, 인도주의, 인문주의를 제시해 주고 있다.<sup>7)</sup>

---

6) 김병곤, 「삼국시대 중앙집권적 왕권의 등장에 따른 지배이념의 채택」, 『한국사연구』 117, 2002, 7쪽.

이러한 유교사상은 백제사회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났다. 먼저, 효의 관념이 강조되었는데, 법왕의 휘는 孝順이었고, 그의 손자인 의자왕은 海東曾子로 불리었으며, 태자의 이름은 孝였다. 이와 같이 효가 강조된 것은 유교적 정치이념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孝의 이념은 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이것은 『孝經』에서 강조되고 있다. 즉, 『효경』에 보면, “효로써 임금을 섬기는 것이 곧 충이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른을 섬기는 것이 곧 順”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를 섬기는 효와 임금을 섬기는 충은 공경하는 점에서 같다.<sup>8)</sup> 이는 孝가 治國으로 확대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유교적 도의정치 이념이 백제사회에 현실적 규범으로 토착해 가는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효는 또한 諫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효가 실천적인 사회규범이 되었던 백제에서 諫臣에 대한 기사가 다수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9)</sup>

또한 유교에서 말하는 忠은 왕에 대한 복종의 표시인 동시에 국가에 대한 보국의 정신이다. 이러한 사실은 『三國史記』가 國事를 대개 王事로 기록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忠은 고대국가의 성장과정에서 강조되어 왔으며, 항상 國家・民族을 전제로 하는 공적인 윤리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대외항쟁이 격화될수록 국난이 빈번할수록 그것은 국민적 덕성으로 성장하였다.<sup>10)</sup> 특히 충의 사상으로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滅私奉公의 정신으로 국가위주 내지는 민족지상의 애국심이요, 둘째는 盡己와 자기희생을 통한 죽음의 도리이고, 셋째는 철저한 용맹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이다.<sup>11)</sup>

이와 같이 충은 유교사상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서는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하였다. 이는 백제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멸망기에 계백이 황산벌전투에 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은 이러한 정신의 발현이라고 하겠다.

7) 유병덕, 「한국 현대 종교사상의 변천과 그 반성」,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V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8) 『孝經』 제5 士章.

9) 정경희, 『한국고대사회문화연구』, 1990, 366쪽.

10)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424-425쪽.

11)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426-429쪽.

## 2) 국가불교의 성립

삼국시대의 불교는 공통적으로 현세적이면서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비록 불교에서 충의사상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호국불교로서의 강한 성격은 결국 충의사상을 발현시키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백제에서 불교가 공인된 시기는 침류왕 원년(384)으로 보고 있다. 당시의 불교 전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호승인 마라난타가 진으로부터 오자 왕이 예와 공경을 다하여 궁내로 맞아들였으며, 이듬해에는 한산에 불사를 창건하고 승려 10인을 두었다고 한다.<sup>12)</sup>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海東高僧傳』에는 “그를 맞아들여 궁중에 모셔두고 禮敬을 다하여 공양하고, 설법을 받아 불사(佛事)를 크게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3)</sup> 이는 불교를 처음 받아들이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미 불교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신왕 즉위년(392)에 국민들에게 “불법을 숭신하여 복을 구하라”<sup>14)</sup>고 하교하였는데, 이를 통해 백제에서 불교를 매우 적극적으로 전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왕이 백성들에게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불교가 국가불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음을 의미한다.<sup>15)</sup>

특히 백제의 불교는 율학이 발전하였다. 백제의 승려인 겸익은 인도에까지 가서 율부를 연구하고, 귀국시 범문(梵文)으로 된 많은 율부원전(律部原典)을 가지고 왔다. 귀국 후에는 흥륜사에 머물면서 당시의 저명한 28명의 승려와 함께 율부원전을 번역하는 등 백제율학을 성립시키기도 하였다. 백제불교가 계율적 내용을 지닌 율종적 경향으로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는, 『삼국사기』 법왕 원년조의 「영을 내려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와 새매를 거두어서 놓아주었으며, 어렴도구는 태워버렸다.」는 기록과 『삼국유사』 法王禁殺條의 「영을 내려 살생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새매의 종류를 놓아주고

12) 『三國史記』 권24 침류왕조.

13) 『海東高僧傳』 권1 流通1 釋摩羅難陀條.

14) 『三國遺事』 권2 흥법3 難陀關濟條, 「下敎崇信佛法求福」.

15) 불교의 국가적 성격은 특히 신라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광의 세속 오계나 고구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중국 수나라에 보내는 乞師表를 쓴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어렵도구를 불사르는 등 일체를 금지하였다.」<sup>16)</sup>는 기록이 있다.

즉, 법왕은 백성들에게 살생을 금하는 영을 내리면서, 동시에 민가에서 기르는 새매 등을 놓아주고, 사냥과 고기잡이 도구들을 모두 불태우도록 하였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윤리의식을 실천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 심어주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sup>17)</sup>

이와 같은 백제 불교의 戒律主義的 경향은 율령 위주의 유교적 측면과 결합되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동시에 계율의 실천에 따른 공덕의 신앙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고 한다.<sup>18)</sup> 뿐만 아니라 계율의 양면성은 충효·절의를 내용으로 하는 유교사상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국민적 덕목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sup>19)</sup>

백제불교는 사비시대에 들어와 크게 발전을 보였다. 성왕은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모시박사와 열반 등 경의를 청하기도 하였으며,<sup>20)</sup> 불교를 일본에 전파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sup>21)</sup> 『주서』 등 중국사서에 보면, 백제에는 “승려와 사탑이 매우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sup>22)</sup> 실제 부여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다수의 사지와 이곳에서 출토되고 있는 금동불상을 비롯한 각종 유물들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백제시대 불교는 지배계층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크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행동원리의 정신적 배경으로서 작용하였던 것이다.

---

16) 『三國遺事』 권3 흥법3 法王禁殺條.

17) 김영태, 『백제불교사상연구』, 1985, 34~35쪽.

신라의 경우에도 불교가 공인된 법흥왕 15년 바로 이듬해에 살생을 금하는 법령이 내려지고 있는데, (『三國史記』 권4, 법흥왕 16년조, 「下令禁殺生」) 백제의 경우와 같이 실천적인 조치까지 행해졌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18) 유남상, 「백제사상의 연구」, 『백제연구』 특집호, 1982, 96쪽.

19) 신형식, 『백제사』, 1994, 234쪽.

20) 『三國史記』 권26, 성왕 19년.

21) 예를 들면, 관록이 일본 초대 승정(僧正)이 되었으며, 의각, 의영, 도장 등 많은 승려들이 일본 불교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22) 『周書』 백제전, 「僧尼寺塔甚多」.

『隋書』 백제전, 「有僧尼 多寺塔」.

### 3) 도교사상의 유입

『주서』에 보면 백제에는 “승려와 사탑이 매우 많았으나 도사는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삼국사기』를 비롯한 『삼국유사』 등 문헌뿐만 아니라 유적·유물을 통해서도 도교사상이 매우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에서 도교사상을 알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근초고왕대에서 찾아진다. 내용을 보면, 「장군 막고해가 간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도가의 말에 죽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이 많은데 어찌 더 많은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태자가 옳다고 여겨 그치고, 돌을 쌓아 표시하였다」<sup>24)</sup>는 것이다. 이것은 근초고왕대 태자인 근구수가 장군인 막고해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던 중 더 이상 북진하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 도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지배계층에게 도가의 경전이 읽혀지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가의 사상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백제사회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도가사상 관련 기록은 무왕조에 보이고 있다. 무왕은 35년(634년)에 궁의 남쪽에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궁의 남쪽에 연못을 파고, 20리에서 물을 끌어다 대었다. 연못 사방에 버드나무를 심고 수중에는 섬을 쌓아 방장선산에 견주었다.」

즉, 궁의 남쪽에 연못을 만들고, 신선들이 산다는 방장선산을 모방하여 섬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도가사상이 현실생활에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를 통해서도 도가사상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 남부여조에

「삼산이 있으니 일산, 오산, 부산이라 한다. 백제 전성시에는 각각 신인이 그

23) 『周書』백제전, 「僧尼寺塔甚多 而無道士」.

24) 『三國史記』권24, 근구수왕 즉위년.



산 위에 있어 서로 날아서 왕래하여 조석으로 끊임이 없었다」

고 하였다. 산 위에 신인이 있어 서로 날아서 왕래했다는 것은 『列子』나 『抱朴子』에 보이는 신선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sup>25)</sup> 당시 도가사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日本書紀』권22 추고기 10년 동10월조에도 무왕 3년(602년)에 승려인 관륵이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둔갑방술에 대한 책을 일본에 전해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26)</sup> 이는 당시 백제에서 도교와 관련된 서적이 일반적으로 읽혀졌음을 말해 준다.

이 외에도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방격규구신수경(方格規矩神獸鏡)이 있는데, 이 거울은 무령왕릉 현실에서 발견된 3점 가운데 하나로 문양은 4마리의 짐승과 이를 사냥하는 모습의 신선 1인이 표현되어 있다. 신선은 머리에 상투를 틀고 반나체에 삼각의 하의를 입은 채 양손에 칼을 들고 있다. 이 거울에는 명문이 있는데, 내용은 「상방에서 만든 거울은 참으로 좋아 옛날 선인들이 늙지 않았고, 목마르면 샘의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대추를 먹으며, 돌같이 긴 생명을 누렸도다.」라고 되어 있다. 이 문장은 신선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로장생하는 신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동경의 제작지가 백제인지 아니면 중국의 화남지방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중국제 동경과는 다른 점이 있어 백제제작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자기록 이외에도 유적·유물을 통해 도교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sup>27)</sup> 앞에서 언급한 궁남지를 비롯하여 송산리 6호분과 능산리 1호분에 그려진 사신도, 무령왕릉 출토 매지권,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금동대향로, 부여 규암출토 문양전 등은 대표적인 도교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백제에서 도교사상이 상당히 성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남아있다. 다만 『주서』에 “승려와 사탐이 매우 많았으나 도사는 없다”고

25) 정경희, 『한국고대사회문화연구』, 일지사, 1990, 206~211쪽.

26) 『日本書紀』권22 推古紀 10년 동10월조, 「百濟僧觀勒來之 仍貢曆本及天文地理書并遁甲方術之書也 是時選書生三四人 以俾學習於觀勒矣」

27) 윤무병, 「백제미술에 나타난 도교적 요소」, 『백제의 종교와 사상』, 1994.

기록하고 있어 실제의 사정과 다른 면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백제사회에 도교 관련 서적이나 신선사상 등은 유입되었으나 종교로서의 도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에는 당으로부터 도교가 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三國遺事』寶藏奉老 普德移庵條를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다투어 五斗米教를 믿는다는 말을 듣고 당 고조가 도사를 시켜 천존상을 보내고, 『도덕경』을 강론하니 王과 國人들이 이를 들었다.»<sup>28)</sup>고 하여 당으로부터 도교가 공식적으로 전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영류왕은 도교사상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영류왕 7년조의 「도사를 시켜 천존상과 도법을 가지고 가서 노자를 강론하니 王과 國人들이 이를 들었다.»는 기록과 8년조의 「왕이 사람을 보내 당에 가서 佛教와 老子的 학문을 구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도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보장왕대 연개소문에 의해서이다.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보장왕 2년조에 보면,

「연개소문이 왕에게 말하기를 “三教는 술의 다리와 같아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된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盛하나 도교는 盛하지 못하니 천하의 도술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신을 당에 보내어 도교를 구하여 국민을 가르치게 하소서”하였다. 대왕이 그러이 여기어 국서를 보내어 요청하였다. 태종은 도사 숙달 등 8명과 함께 『도덕경』을 주어 보내 왔으므로 왕이 기뻐하고, 佛字에 머물게 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도교의 적극적인 수용이 비록 정치적 성격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고구려에 도교가 공식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제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고구려의 경우 도교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 그리고 각종 기록이나 유적·유물을 통

28) 『三國遺事』 권3 興法3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해서 보더라도 백제에 도교사상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제의 도교사상은 주로 신선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사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째는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면이 있으며, 둘째는 윤리적인 선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아율려 仙道는 기본적으로 귀족적이고 不老長生이라는 현세적 욕구를 위한 지배계층의 문화이며, 지배계층의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교가 백제 정신문화의 일정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근초고왕대 태자 근구수가 고구려와 전쟁을 하던 가운데 장군 막고해가 도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도가사상이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도교사상이 지닌 현실도피적 성격으로 인해 충의·절의 사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가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 충의·절의 정신에 관한 자료 검토

삼국시대 충의·절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있어 제일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三國史記』 열전이라고 할 수 있다. 『三國史記』에는 10권의 열전이 있는데, 10권 중 김유신전이 3권에 달하며, 나머지 7권에 49명의 인물에 대한 전기를 실고 있다. 그 결과 『三國史記』 열전이 名臣·儒學·忠義·烈女·叛逆 등에 대한 기록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내용의 불균형 속에서도 위국충절을 강조함으로써 강력한 국가의식과 유교도덕의 준수를 제창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sup>29)</sup> 특히 『三國史記』 열전에 보이는 69명 가운데 21명이 滅私奉公이나 爲國忠節을 위해 순국한 사람이며, 7세기의 인물은 거의가 전사자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은 삼국시대 말기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30)</sup>

29) 신형식, 『삼국사기연구』, 1990, 336~341쪽. 『三國史記』列傳에 기록된 인물은 개인전기를 가진 인물은 50명이지만 그 속에 행적이 나타나고 있는 인물은 모두 69명에 이른다.

30) 다만 이러한 편찬태도가 김부식 또는 12세기 고려시대의 사회적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다(신형식, 『삼국사기연구』, 1990, 340쪽).

그러나 『三國史記』 열전을 통해 三國의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대부분 신라의 사례만이 승자의 논리에 의해 세상에 전해지고 있을 뿐이며, 백제와 고구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겨진 자료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실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삼국시대 전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백제의 경우에도 충의·절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三國史記』의 자료가 중심이 되며, 특히 열전에 실려있는 階伯傳과 都彌傳은 그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三國史記』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설화 및 전설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충의정신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제는 고구려에 의해 왕도가 함락되는 위기에 처하고, 궁극적으로는 신라에 의해 멸망되는 운명을 맞았다. 따라서 백제는 역사가 전개되어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위국충절을 보인 인물들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며, 또한 내용도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한성시기와 웅진시기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거의 전무한 편이며, 사비시기에도 백제가 멸망하기 전후의 의자왕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성 및 웅진기와 사비기로 구분하여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 1) 한성시대

### (1) 한성기의 정국상황

한성기에는 마한 54국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고대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해 많은 국가적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다. 그렇지만 충의·절의 정신과 관련된 자료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이는 백제가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체제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왕 중심의 지배체제가 완비되지 못함으로써 국가 및 왕에 대한 관념이 정립되지 못한데 일부 원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록의 미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자료의 검토

한성기 충의 및 절의와 관련된 자료는 매우 적은 편이며, 이를 통해 그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먼저,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충의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가. 4월에 숙부 질을 후보로 삼았는데, 질은 성품이 충의롭고 일을 함에 실수가 없었다.(『三國史記』 권24 고이왕 9년조)

나. 일찍이 들으니 도가의 말에 죽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이 많은데 어찌 더 많은 것을 구하겠습니까.(『三國史記』 권24, 근구수왕 즉위년)

사료 1-가의 경우 고이왕이 질을 후보로 삼았는데, 그를 등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성품이 충의롭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충의가 매우 중시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다. 다만 그가 왕족이었다는 사실에서 국가와 왕에 대한 일반인들의 충의정신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고이왕대는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확립해 가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왕에 대한 충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것이 관료들 등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 1-나는 근초고왕대 태자 근구수로 하여금 고구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때 백제군이 승승장구하여 고구려 국경 깊숙이 진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장군 막고해가 태자인 근구수에게 고구려의 공격을 중지할 것을 간하고 있다. 이는 물론 막고해가 태자에게 충언을 한 것이지만 당시 근구수가 부왕인 근초고왕으로부터 군사권을 위임받아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국가에 대한 충간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성기에 보이는 충의관련 자료는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한성

기에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체제가 성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율령의 제정, 국사의 편찬, 유교교육의 실시 등 일련의 체제정비로 인해 국가와 왕에 대한 충의 개념이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성말기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으로 인한 왕도의 함락 등 국가적 위기가 초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충신들이 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록의 누락 등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대개 충의정신은 국가적 위기에서 발현된다는 점에서 왕도가 함락되고 왕이 적군에 의해 붙잡혀 죽는 현실 속에서 많은 충신들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개로왕의 전제군주적 정국운영과 과도한 토목공사 등을 통한 국력의 낭비, 백성들의 어려움 등 폭정으로 인해 개로왕에 대한 충정은 미약했을 지라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절의정신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백제시대 절의정신의 상징은 도미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출생시기, 신분, 사망시기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三國史記』 열전에 그녀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어 그녀의 절의정신을 살펴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미는 백제인이었다. 비록 벽춘의 소민이지만 자못 의리를 알며, 그 아내는 아름답고도 절행이 있어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개루왕이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기를 “무릇 부인의 덕은 정결이 제일이지만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은 말로 피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하니, 대답하기를 “사람의 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하였다. 왕이 이를 시험하려고 일이 있다가 하여 도미를 머물러 두고, 근신 한 사람에게 왕의 의복과 말·종자를 빌려주어 밤에 그 집에 가게 했는데, 먼저 사람을 시켜 왕이 온다고 알리었다. 왕이 와서 그 부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도미와 장기간을 하여 이기었다. 내일은 너를 들여다 궁인을 삼을 것이니, 지금부터 네 몸은 나의 소유이다”고 하면서 난행하려 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국왕에게 명령된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

저 방으로 들어가소서. 내가 옷을 고쳐 입고 들어가겠습니다”하고 물러와 한婢子를 단장시켜 들어가 수청을 들게 하였다. 후에 왕이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를 죄로 얹어 두 눈동자를 빼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어 작은 배에 싣고 물 위에 띄워보냈다. 그리고 그 부인을 끌어들이어 강제로 상관하려 하였는데, 부인이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단독일신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월경으로 온 몸이 더러우니 다른 날 깨끗이 목욕하고 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믿고 허락하였다. 부인은 그만 도망하여 강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너 갈 수가 없어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는 중, 홀연히 한 척의 배가 물결을 따라 오는 것을 보았다. 그 배를 타고 천성도에 이르러 그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蒜山 아래에 이르니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의식을 주어 구차스럽게 살면서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다.」<sup>31)</sup>

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배경은 개루왕대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개루왕은 백제 제4대 왕으로 재위기간은 128년부터 166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중국 군현인 낙랑군이 존재하고 있을 때이므로 위의 이야기와 시대적 배경이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제21대 개로왕(一云近蓋婁)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추정되고 있다.<sup>32)</sup> 특히 개로왕은 왕권강화를 위해 대토목공사를 비롯한 전제군주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였으며,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도미부인의 이야기는 개로왕의 폭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상황 속에서 한 국가의 왕조차도 서민의 아내인 도미부인의 남편에 대한 지조와 도미의 아내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아녀자의 정절을 강조하고 중시했던 윤리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31) 『三國史記』 권48, 열전 8, 도미전.

32) 이병도, 『三國史記』 국역편, 1986, 707쪽.

## 2) 웅진시대

### (1) 웅진기의 정국상황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과정에서 한성 함락과 개로왕의 죽음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왕도를 웅진으로 천도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치명적인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문주왕과 삼근왕 등 웅진 초기에 재위한 왕들은 피살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며, 정국은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웅진기의 정치적 혼란은 동성왕대 들어와 어느 정도 수습되었다. 동성왕은 왕권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등용하였으며, 신라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무령왕대에 와서는 대내·외적인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게 된다. 그 결과 다시 예전의 국력을 회복함으로써 국가 중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 (2) 관련 자료의 검토

웅진기(475~538년)는 그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초기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관련 자료가 매우 적다. 따라서 웅진시기의 충의·절의 정신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일부나마 찾아보고자 한다.

2-가. 여름에 크게 가물어 백성들이 굶주려 상식하고, 도적이 많이 일어났다.

신료들이 창고를 열어 구휼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한산 사람 가운데 2천인이 고구려로 도망하였다.(『三國史記』 권26 동성왕 21년조)

나. 봄에 궁의 동쪽에 임류각을 지었는데 높이가 5장이나 되었으며, 또한 연못을 파서 진기한 세를 길렀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며, 다시 간하는 신하가 있을까봐 궁문을 닫아버렸다.(『三國史記』 권26 동성왕 22년조)



사료 2-가·나는 동성왕대 왕의 실정에 대하여 신하들이 忠諫을 한 내용이다. 동성왕은 즉위 후 다양한 정치세력을 등용하여 왕권강화에 성공하였으며, 재위 말기에 이르러서는 전제왕권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토목공사를 실시하는 등 실정을 하였다. 그로 인해 신하들이 왕의 정국운영에 대하여 충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와 왕에 대한 신료들의 충의정신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령왕대에는 관련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무령왕은 즉위과정에서 커다란 정치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무령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그를 위해 충성한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대고구려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심이 크게 드러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무령왕대는 왕권의 강화를 비롯하여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정국운영이 이루어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료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기록의 부족에서 1차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되어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 3) 사비시대

#### (1) 사비기의 정국상황

충의 및 절의 정신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백제말기의 정치상황은 어떠하였는가? 대부분의 고위관료들이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왕에게 아첨을 하며, 국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왕은 신하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첨하는 말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三國史記』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에 보이고 있다.

「귀신 하나가 궁중에 들어와서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고 크게 외치고는 곧 땅 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괴이하게 여기어 사람을 시켜 땅을 파보게

했더니 삼척 가랑 깊이에서 한 마리의 거북이 나왔다. 그 등에 글이 써 있었는데, 이르기를 “백제는 달바퀴와 같고, 신라는 신월과 같다”고 했다. 왕이 이를 巫子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달바퀴와 같다는 것은 찢다는 것이니, 차면 기울 것이요, 신월과 같다고 함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이니, 차지 않으면 점점 찢 것이다”고 했다. 왕이 노하여 그를 죽였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月輪과 같다는 것은 盛을 의미한 것이요, 신월과 같다는 것은 미약을 뜻한 것이니, 생각건대 국가는 성하고 신라는 점점 미약해진다는 것일까 합니다”고 하니 왕이 기뻐하였다.」

즉, 위의 사료는 의자왕이 충언을 듣지 않고, 아침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삼국의 정세와 백제의 정치상황에 대한 측근세력들의 인식부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신하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의 이익을 저버리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는데, 당시의 정국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좌평 임자와 관련된 다음의 기록이다.

「이에 앞서 租未坤 級漁이 夫山縣令으로 있었던 바 백제에 사로잡혀 가서 좌평 任子의 집 종이 되었는데, 일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정성껏 하여 태만한 적이 없었다. 임자가 가궁히 여기어 의심치 않고 마음대로 출입하게 하였다. 이에 도망해 돌아와 백제의 사정을 庾信에게 고하였다. 유신은 租未坤이 忠正하여 쓸 만함을 알고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임자가 백제의 일을 전담한다 하니 함께 의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계제가 없었다. 그대가 나를 위하여 다시 돌아가서 말하라”하니, 대답하기를 “공이 나를 不肖하다 않으시고 시키시니 죽더라도 뉘우침이 없겠습니다”하였다. 그리고 다시 백제로 들어가서 임자에게 고하기를 “제 스스로 생각에 이미 국민이 되었으니 國俗을 알아야 하겠다 하여 나가 놀기 여러 旬日 동안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니 개와 말이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다시 왔습니다” 하였다. 임자가 믿고 책망하지 않았다. 租未坤이 틈을 타서 보고하기를 “전번에는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신라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유신이 나에게 일

러 다시 가서 그대에게 고하라 하되 ‘나라의 흥망을 미리 알 수 없는 일이니, 만일 그대의 나라가 망하면 그대가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내가 그대의 나라에 의지하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임자가 듣고 묵묵히 말이 없었다. 租未坤이 황공하여 물러와 죄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어 달 만에 임자가 불러서 묻기를 “네가 전번에 말한 바 유신의 말이 어떤 것인가”하였다. 租未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전에 말한대로 대답하니, 임자가 “네가 전한 말을 내가 잘 알았다. 가서 알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와서 말하고, 다른 中外의 일도 丁寧詳悉하게 말하니 여기서 더욱 백제를 병탄할 모의를 급히 하였다.」<sup>33)</sup>

위의 사료는 고위귀족이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한 세력도 있었지만 현실에 있었던 대부분의 세력들은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일신상의 영리를 위해 국가 안위를 저해하거나 정치세력간의 갈등을 조장하였다.

실제 의자왕대 지배세력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2부류로 구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록으로는 부여 정림사지 5층탑에 새겨져 있는 <唐平百濟碑>와 『日本書紀』齊明紀 6년조의 다음 내용이다.

3-가. 하물며 밖으로 곧은 신하를 버리고 안으로 요망한 계집을 믿어 오직 충성되고 어진 사람한테만 형별이 미치며 아첨하고 간사한 사람이 먼저 총애와 신임을 받아 標海에 원망을 품고 杼軸에 슬픔을 머금는다<sup>34)</sup>

나. 대장군 소정방의 협격을 받아 백제가 망하였는데, 혹은 백제가 스스로 망하였다고도 한다. 군대부인인 요녀가 무도하고 국권을 임의로 하여 어진 신하를 주살하여 이와 같은 화를 불러왔다.<sup>35)</sup>

33) 『三國史記』 권42, 열전2 金庾信 中.

34) 한국고대사회연구소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1, 「唐平百濟碑」, 「況外棄直臣 內信祓(妖)婦 刑罰所及 唯在忠良 寵任所加 必先諂倖」.

35) 『日本書紀』齊明紀 6년조, 「七月云云 春秋智借大將軍蘇定方之手 挾擊百濟亡之 或曰百濟自亡 有君大夫人妖女之 無道단奪國柄 誅殺賢良 故召斯禍矣 可不愼歟 可不愼歟」

사료 3-가는 소정방이 백제의 왕도를 함락시킨 후 정립사지 5층탑에 자신의 공을 기록한 내용으로, 여기서는 의자왕대 신료계층의 성향이 忠良과 諂倖의 세력으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사료 2를 통해서도 군대부인이 전횡을 하는 과정에서 그 화가 賢良한 신하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기록을 통해서 의자왕대의 정치세력은 크게 충량과 첨행의 무리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忠良(賢良)과 諂幸에 주목하여 충량은 성충·홍수로 대표되는 大姓八族의 무리를, 첨행은 의자왕과 뜻을 같이했던 세력으로 계백과 흑치상지를 대표로 하는 달솔(비대성팔족)층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도 한다.<sup>36)</sup>

실제로 성충과 홍수 같은 인물은 의자왕에게 목숨을 걸고 충언을 하였으므로 충량의 신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대성팔족이라는 고위귀족으로 한정할 수만은 없다. 그것은 김유신과 내통한 좌평 임자와 같은 이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의자왕과 뜻을 같이 했던 부류, 즉 첨행의 무리로는 주로 달솔의 관등을 지닌 인물로 보았으며, 계백과 흑치상지를 대표적인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계백의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실제와는 다른 관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당시의 정치세력을 대성팔족과 달솔계층으로 크게 양분하여 충량과 첨행의 무리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각 정치세력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국가의 정국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그 결과 정국의 분열을 초래하여 결국 국가의 멸망을 자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신라에 항복하는 고위관료도 다수 나타났다. 이들은 신라로부터 벼슬을 받고, 나아가 백제부흥군의 공격에 선봉을 서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황산벌진투에 참가했다가 항복한 충상과 상영 등을 들 수 있으며,<sup>37)</sup> 이들 외에도 다수의 백제관료들이 신라에 항복하였다.

「백제의 인원도 다 그 재능을 보아 임용하니, 좌평 충상과 상영, 달솔 자간에게는 일길찬의 벼슬을 주어 총관의 직에 보하고, 은술 무수에게는 대나마의 벼슬을 주어 대감의 직에 보하고, 은술 인수에게는 대나마의 벼슬을 주어 제감에 보하였다.」<sup>38)</sup>

36) 김주성,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 멸망」, 『백제연구』 19, 269~271쪽.

37)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6년.

백제 멸망 후 계백과 함께 황산벌전투에 참여했던 좌평 충상과 상영을 비롯해 달솔 자간 등은 신라로부터 官等을 받고 있다. 이들이 신라의 관등을 부여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나당연합군의 대백제전 승리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sup>39)</sup>과 백제 멸망 후 반항하는 세력들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신라군을 크게 도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등<sup>40)</sup> 여러 견해가 있다. 실제로 이들은 신라의 백제부흥군 진압에도 참여하였다. 태종무열왕 8년 백제부흥군이 사비성을 공격하자 신라로부터 아찬의 位를 받은 충상은 大幢將軍 伊品日의 副將軍이 되어 출정하고 있다.<sup>41)</sup>

이와 같이 당시 항복한 인물들이 신라로부터 관등과 관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제부흥군 등을 토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계백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가족을 모두 죽인 사실과 전투 중에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나 죽음을 무릅쓰고 충간한 성충·홍수 등과 비교할 때 백제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다.

## (2) 관련자료의 검토

사비기에 와서 삼국간의 영역확장을 위한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사비시기의 충의·절의 정신과 관련된 자료는 주로 삼국간의 통일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백제말기와 부흥운동기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 ① 사비 말기

먼저 사비 말기의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이 시기에 충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성충과 홍수·윤충, 그리고 황산벌전투에서 5천의 결사대를 이끌었던 계백을 들 수 있으며, 절의정신의 상징으로는 삼천궁녀로 전해지는

38) 『三國史記』 무열왕 7년 11월 22일조, 「百濟人員量材任用 佐平忠常 常永 達率自簡 授位一吉 充職總管 恩率武守 授位大奈麻充職大監 恩率仁守 授位大奈麻充職弟監」.

39) 김수태, 「백제 의자왕대의 정치변동」, 『한국고대사연구』 5, 1992, 71쪽.

40) 노중국, 「統一期 新羅의 백제고지시대」, 『한국고대사연구』 1, 1988, 122쪽.

41) 『三國史記』 권5, 무열왕 8년조.

백제여인의 절의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 가. 成忠

성충은 의자왕대의 인물로 淨忠이라고도 한다. 그의 출생시기나 신분, 구체적인 이력 등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당시 최고위의 직인 좌평을 지낸 것으로 보아 최고 귀족신분이었음은 분명하다. 성충은 656년(의자왕 16년) 의자왕이 궁녀들과 더불어 술마시며 향락에 빠지자 왕에게 충간을 하였는데, 이에 왕이 노하여 그를 옥중에 가두었다. 그는 결국 옥중에서 죽었는데, 죽으면서도 왕에게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비책을 올렸다. 그와 관련된 자료는 『三國史記』에 비교적 상세하기 전하고 있는데,

「16년 3월에 왕이 궁인과 더불어 淫荒 耽樂하여 술마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좌평 成忠이 極諫하니 왕이 노하여 옥중에 가두었다. 이로 인하여 감히 간하는 자가 없었다. 성충은 瘦死하였는데, 죽음에 임하여 上書하기를 “충신은 죽더라도 임금을 잊지 않는 것이니, 한 말씀 올리고 죽고자 합니다. 신이 항상 시세의 변천을 살펴 보건대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무릇 用兵에는 반드시 그 地理를 살펴 택할 것이니 (강의) 上流에 처하여 적을 맞이한 후에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나라의 군사가 쳐오면 陸路에서는 沈峴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을 伎伐浦 연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러한 險隘한 곳에 의지하여 적을 막은 후에야 可합니다”고 하였다. 왕이 돌보지 아니하였다 .」 42)

성충은 죽으면서도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의자왕에 대한 충언을 남겼다. 그러나 의자왕은 성충의 충언을 듣지 않음으로써 나당군의 침략을 저지하는데 실패하게 되었으며, 결국 왕도는 함락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이때 의자왕은 성충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데, 『三國史記』에 「唐兵은 勝戰하여 성

42) 『三國史記』 권28, 의자왕 16년조, 「十六年 春三月 王與宮人淫荒耽樂 飲酒不止 佐平成忠 [或云淨忠] 極諫 王怒囚之獄中 由是無敢言者 成忠瘦死 臨終上書曰 忠臣死不忘君 願一言而死 臣常觀時察變 必有兵革之事 凡用兵必審擇其地 處上流以延敵 然後可以保全 若異國兵來 陸路不使過沈峴 水軍不使入伎伐浦之岸 據其險隘以禦之 然後可也 王不省焉」

으로 육박하니 왕은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成忠의 말을 쓰지 않고 이에 이른 것을 후회한다”하고 드디어 太子 孝와 함께 北邊으로 도망하였다.<sup>43)</sup>」라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 나. 홍수

홍수도 의자왕대 좌평을 지낸 인물로 출생 시기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三國史記』에 단편적인 기록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의자왕 20년(660년)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하자 의자왕은 이를 대비할 방법을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죄를 받아 고마미지현(지금의 전남 장흥에 비정)에 유배되어 있던 홍수에게 묻게 하였다.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왕은 이에 주저하여 어느 말을 따를지 알지 못하였다. 때에 좌평 興首가 죄를 얻어 古馬彌知縣(지금의 전남 장흥)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일이 급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興首가 말하기를 “唐兵은 수가 많고 軍律이 嚴明하고, 더구나 신라와 공모하여 掎角의 세를 이루고 있으니 만일 평원 광야에서 대진하면 승패를 알 수 없을 것이다. 白江(혹은 伎伐浦라고 함)과 炭峴(혹은 沈峴이라고 함)은 我國의 要路이다. 一夫單槍을 萬人도 당할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용사를 가려서 가 지키게 하여, 唐兵으로 하여금 白江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인으로 하여금 炭峴을 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대왕은 重閉 固守하고 있다가 적의 군량이 다하고 士卒이 피로함을 기다려서 이를 奮擊한다면 반드시 적병을 깨뜨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에 대신들은 믿지 않고 말하기를 “興首는 오랫동안 유배 중에 있어 임금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을 쓸 수가 없다.<sup>44)</sup>」

43) 『三國史記』 권28, 의자왕 20년조.

44) 『三國史記』 권28, 의자왕 20년조, 「王猶豫不知所從 時佐平興首得罪流竄古馬彌知之縣 遣人問之曰 事急矣 如之何而可乎 興首曰 唐兵其衆 師律嚴明 況與新羅共謀掎角 若對陣於平原廣野 勝敗未可知也 白江〔或云伎伐浦〕 炭峴〔或云沈峴〕我國之要路也 一夫單槍 萬人莫當 宜簡勇士往守之 使唐兵不得入白江 羅人未得過炭峴 大王重閉固守 待其資糧盡 士卒疲然後奮擊之 破之必矣 於時大臣等不信曰 興首久在縲紲之中 怨君而不愛國 其言不可用也」

그렇지만 홍수의 계책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홍수가 죄를 받은 원인도 기록에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의자왕에 대한 충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비록 홍수는 의자왕으로부터 쫓겨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끝까지 충언을 하였던 것이다.

백제말기 의자왕에게 충언을 한 대표적인 충신으로 홍수와 성충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설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음의 천정대 설화는 의자왕의 실정과 홍수 성충의 인물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천정대는 임금의 정승 될 이의 이름을 석함에 넣어 여기에다 넣으면 도장이 찍혀 나오는 곳이다. 정승된 이는 임금을 모시고 까치 넷가의 임금바위에 가서 국운을 하늘에 기원한다. 의자왕때 성충과 홍수가 직간을 하자 의자왕은 이들을 잡아치우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만 넣었더니 석함에 도장이 찍혀 나오지 않아서 성충이 계속 정승을 하였다. 의자왕은 이들을 유폐시키고 마음대로 정승을 임명해서 백제가 망했다.」<sup>45)</sup>

이와 같은 설화는 백제말기 의자왕의 실정과 백제의 멸망을 연결시키는 가운데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성충과 홍수와 같은 충신을 멀리한 것이 결국 백제의 멸망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성충과 홍수가 충신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계백

계백은 황산벌전투에서 5천결사대와 함께 산화한 인물이다. 그의 출생과 신분, 경력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나 다행히 『三國史記』열전에 그에 대한 전기가 기록되어 있어 그의 충절을 살펴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는 달솔의 관등에 있었으며, 국운을 건 전투에 최고 지휘자로 출전한 것으로 보아 뛰어난 무장이었음은 분명하다. 특히 그는 출전에 앞서 그의 가족을 모두 죽임으로써 의연한 결의를 다졌으며, 전쟁터에서도 목숨을 바쳐 국가에 대한 마지

---

45) 김균태, 「부여지역의 설화연구」, 『역사민속학』 3호.



막 충성을 다하였다. 이러한 계백의 정신은 충의정신의 표상이 되고 있다. 열전에 실려있는 계백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階伯은 백제인으로 仕路에 나서 達率(第二品)이 되었다. 唐 顯慶 5年 庚申(西紀 660)에 高宗이 蘇定方으로 神丘道大總管을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신라와 함께 백제를 치게 하였다. 階伯이 장군이 되어 決死隊 5천명을 뽑아 막으며 말하기를 “한 나라의 人力으로 唐·羅의 大兵을 당하니, 나라의 存亡을 알 수 없다. 내 妻子가 잡혀 奴婢가 될지도 모르니, 살아서 욕을 보는 것보다 죽어서 快함만 같지 못하다” 하고, 그만 다 죽이고 황산들(野)에 나와 세 곳에 진영을 쳤다. 신라 군사와 만나 장차 싸우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들과 맹세하기를 “옛날(越의 임금) 句踐은 5천명으로 吳의 70만 군사를 무찔렀다. 오늘은 모두 다 奮勵 決勝하여 國恩에 보답하자” 하고 무찔러 싸우니 한명이 천명의 적을 당해내는 격이어서 신라병이 그만 물러갔다. 이렇게 進退하기를 4次나 하였으나 힘이 모자라 죽었다.」<sup>46)</sup>

그리고 『三國史記』 백제본기 의자왕조에도 계백에 대한 내용이 일부 보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唐·羅의 군사가 이미 白江과 炭峴을 거쳤다는 말을 듣고 將軍 階伯으로 하여금 決死隊 五千을 거느리고 黃山에 나아가 新羅兵과 싸우게 하였는데, 네 번 會戰에 모두 이기었으나 兵力이 적고 힘이 꺾이어 드디어 敗하고 階伯도 죽었다.(《三國史記》 百濟本紀 卷28 義慈王 20年)」

위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황산벌전투에서 보여준 계백의 행위는 충의정신의 표상이다. 당시 삼국 사이에는 통일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충의로운 장수들이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유독 패망한 국가의 장수였던 계백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계백은 출전에 앞서 가족을 모두 죽임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46) 『三國史記』 권47, 열전7 階伯傳.

유는 가족들이 적에게 잡혀 욕되게 살아갈 것을 염려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백의 행위를 싸워보지도 않고 패할 것을 미리 생각하였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황산벌전투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비판은 무의미해진다. 황산벌전투는 신라 주력군과의 최초의 전투일 뿐만 아니라 신라와 당의 연합작전을 저지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싸움이였다. 따라서 계백은 출전에 앞서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했으며, 결국 가족을 죽이는 것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당시 백제의 정국상황을 보면, 좌평 임자와 같은 인물은 김유신과 내통하여 자신의 안위를 꾀하였으며, 많은 귀족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충과 홍수 같은 충신들의 충언을 무시해 버리는 혼란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는 상황 하에서 이를 반전시키고 병사들로 하여금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보다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그것이 계백으로 하여금 출전에 앞서 가족을 모두 죽이는 방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황산벌전투에 임해서 4차례의 승리를 거둔 것은 그의 뛰어난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에 의해 가능하였다. 결국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였으나 많은 장수들이 항복하는 와중에 계백은 5천결사대와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런데 계백의 충의정신이 더욱 빛나는 것은 단지 전투에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는 비록 국운을 건 전투였지만 道義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신라는 전황이 불리하자 나이 어린 화랑들을 동원하여 군사의 사기를 돋우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백은 관창을 사로잡았으나 그의 어린나 이와 용맹함에 감탄하여 그를 살려 보내주었으며, 재차 잡혔을 때에는 부득이 목을 베어 돌려보냈다.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였지만 계백은 진정한 충의 가치를 인식하고,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계백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절대가치를 중시하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백의 정신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계백과 관련된 자료는 신라측의 기록을 통해서도 다수 확인된다. 예를 들면, 태종무열왕 7년조의 황산벌 전투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비롯해

열전에 실려있는 김영윤전과 관창전에도 황산벌전투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계백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태종무열왕조와 관창전에는 전투에서 관창을 사로잡았다가 놓아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등 백제본기 및 계백전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황산벌전투에서의 계백의 활동과 그의 충의정신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 라. 윤충

윤충은 백제 의자왕대(재위 641~660년)의 장군으로 신라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에 대한 자료는 『三國史記』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다.

「장군 윤충을 보내어 군사 일만을 거느리고 신라의 대야성(합천)을 쳤다. 성주 품석이 처자와 함께 나와 항복하매 윤충이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 왕도에 전하였다. 남녀 일천인을 사로잡아 국서 주현에 분거케 하고 군사를 머물러 그 성을 지키게 하였다. 왕이 윤충의 공을 論賞하여 말 20필과 곡식 1천석을 주었다.」<sup>47)</sup>

윤충에 대해서는 단지 신라와 한 차례 전쟁을 한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출신성분이나 관등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가 1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한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그의 신분과 정치적 위상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의자왕은 윤충으로 하여금 신라 서부지역의 군사적 거점인 대야성(大耶城:지금의 합천)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윤충은 그해 8월에 군사 1만을 이끌고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이 전투에서 윤충은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과 그 처자를 죽였으며, 남녀 1천여인을 사로잡아 나라 서쪽의 주현(州縣)에 나누어 거주시켰다. 대야성전투의 승리로 백제는 신라의 서부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

47) 『三國史記』 권28, 의자왕 2년조.

그런데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도 윤충의 충의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부여지방에서 전해지고 있는 설화적 이야기를 통해 그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부여 임천면에 ‘성흥산성과 일곱왕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성흥산성에서 일곱 왕자와 더불어 항전하던 윤충이 사비성에 왔다가 모함을 받아서 죽었다」는 내용이다. 또 은산면에서도 윤충이 나오는 ‘삼괴정의 세장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내용은 「윤충이 세 장수와 함께 왕에게 충간 끝에 옥에 갇혔다가 탈옥하여 은산에 은거하며 국난에 대비한다. 그러나 윤충은 흑치상지의 배신으로 죽고 나머지 장수들은 왕자의 권력 다툼으로 패하고 말았다. 이들이 죽은 곳에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자랐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이 두 이야기는 시간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맞지 않지만 윤충이 의자왕에게 충간한 사실과 백제의 국난을 위해 싸우려다 귀족세력간의 내분으로 인해 결국 죽음을 당하였다는 요지의 설화이다. 이는 결국 충의로운 장수들이 내분과 동료들의 배신으로 패한 것에 대한 울분과 안타까움을 설화를 통해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설화의 내용으로 본다면 윤충은 사비도성이 나당연합군에 의해 함락되는 시점까지도 살아있었을 가능성과 그가 부흥운동에 참여했다가 무고한 죽음을 당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마. 삼천궁녀

백제말기에는 충의사상 뿐만 아니라 절의사상이 두드러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절의정신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삼천궁녀의 이야기이다. 이는 비록 역사적 진실성은 부족하며, 한편으로는 의자왕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과장된 이야기일지라도 백제시대 절의정신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가. 백제고기에는 부여성 북편 모퉁이에 큰 바위가 있어 아래로 강물을 접하였는데 相傳하기를 의자왕과 모든 후궁이 함께 화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서로 말하되 차라리 자살할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하고 서로 이끌고 와서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한다. 그래서 속에 타사암이라고 하나

이것은 속설의 잘못된 것이다. 다만 궁인이 떨어져 죽었다. 의자왕이 당에서 죽었다는 것은 唐史에 명문이 있다.<sup>48)</sup>

나. 조룡대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의자왕이 당나라 군사에게 패하게 되자 궁녀들이 쏟아져 나와 이 바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으므로 낙화암이라 이름했다.<sup>49)</sup>

사료 4-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三國遺事』에서는 단지 궁인들이 떨어져 죽고, 그 곳을 타사암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新增東國輿地勝覽』 부여현조에서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낙화암이라는 명칭이 보이고 있다. 이후에 기록된 각종 지리서들에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과 대개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들 내용이 비록 설화적인 요소를 함축하고는 있을지라도 당시의 역사적 실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백제가 멸망할 당시의 여인들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삼천궁녀는 일부 궁인들도 포함되었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사비도성 안의 귀족과 일반 백성들의 아녀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내용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삼천궁녀 이야기로 부풀려졌지만 도미부인의 절의정신을 이은 대표적인 절의사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朝鮮王朝實錄』 영조 34년 10월 4일 정사조의 기록에 창절서원을 개수하도록 하는 중에 “낙화암이 있는데, 그때 궁인들이 사절(死節)하였기 때문에 ‘낙화암’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토민들이 사당을 세운 것도 또한 치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영조대 이전에 낙화암에서 사절한 궁녀들을 제사지내는 사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일반인들조차도 삼천궁녀의 절의를 높이 평가하여 제사하였음을 보여준다.

## 바. 기타

그리고 비록 후대의 기록에 남겨진 내용이라는 하지만 백제시대 정절관념을

48) 『三國遺事』 권1 기이1 태종춘추공조, 「百濟古記云 扶餘城北角有大岩 下臨江水 相傳云 義慈王與諸後宮知其未免 相謂曰 寧自盡 不死於他人手 相率至此 投江而死 故俗云墮死岩 斯乃俚諺之訛也 但宮人之墮死 義慈卒於唐 唐史有明文」

49) 『新增東國輿地勝覽』 부여현조.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고려사』에 전해지고 있는 ‘지리산가’이다.<sup>50)</sup>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례현 지리산에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집안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아녀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다. 백제왕이 그 미모를 듣고 그녀를 맞아들이고자 하니 그녀는 이 노래를 지어 죽어도 따르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지리산가는 그 내용이 도미설화의 이야기와 비슷해 지리산녀와 도미부인이 동일인일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성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백제시대에 이와 같은 여인의 정절을 중시하는 관념이 널리 퍼져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된다.

이 외에도 백제여인의 사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운산가”가 『고려사』에 전해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장사인이 전쟁에 나가 기한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아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운산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는 백제여인의 남편에 대한 사모의 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51)</sup>

이들 내용은 비록 시기나 배경 등이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백제 여인들의 의식세계와 정절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 ② 부흥운동기

660년 7월 사비도성이 함락된 이후 3년간에 걸친 부흥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부흥운동은 사비도성이 함락된 직후(660년 7월 18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임존성이 함락되는 663년 11월까지 대략 3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백제유민이 봉기하여 저항을 시작한 시기이며, 제2기는 나당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한 시기로 사비도성을 포위하고, 양도를 끊어 나당군을 위기로 몰아넣는 시기이며, 제3기는 부흥군 지도층의 내분으로 인한 패망기로 구분된다.

이 부흥운동기에 나타난 백제정신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강렬하고 의기에

50) 『高麗史』 권71 지25 악2 三國俗樂 百濟, 「智異山 求禮縣人之女有姿色居智異山 家貧盡婦道 百濟王聞其美 欲內之 女作是歌誓死不從」.

51) 『高麗史』 권71 지25 악2 三國俗樂 百濟, 「禪雲山 長沙人征役過期不至其妻思之登禪雲山望而歌之」.

찬 것이었으며,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이때 활동한 인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기록을 통해 볼 때 두드러진 활동을 한 인물로는 복신·도침·부여풍·지수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부흥장으로 흑치상지가 있으나 그는 부흥운동 말기에 당군에 항복하여 임존성 공격에 선봉을 맡음으로써 결국 부흥운동에 종지부를 찍은 인물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들 부흥장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기록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당시 부흥장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삼국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무왕의 조카 복신이 일찍이 장수의 경력이 있었는데, 이때 승 도침과 함께 주류성에 의지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일찍이 왜국에 불모로 가 있던 고왕자 부여풍을 맞아 왕을 삼았다. 서북부가 모두 이에 응하니 군사를 이끌고 인원을 도성에서 포위하였다. 이에 조서로써 유인케를 기용하여 검교대방주자사를 삼고 왕문도의 무리를 거느리고 신라병을 보내어 인원을 구하게 하였다. 인케가 기뻐서 말하기를 “하늘이 장차 이 늙은이를 부귀케 하려 한다”하고 당력과 묘회를 청하여 가지고 가면서 이르기를 “내가 동이를 평정하고 대당의 정사를 해외에 반포코자 한다”고 하였다. 인케가 군사를 엄정히 통솔하고 전투를 하면서 전진하니 복신 등이 웅진강구에 두 책을 세우고 막았다. 인케가 신라병과 합치어 이를 치니 아군이 퇴각하여 책으로 들어와 강으로써 막았는데, 다리가 좁아서 떨어져 빠지고 싸워 죽는 자가 만여인이 되었다. 복신 등이 이에 도성의 포위를 풀고 물러와 임존성에 보진하였는데, 신라인은 양식이 다하여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니 용삭 원년(661) 3월이었다. 이에 도침은 스스로 영군장군이라 일컫고 복신은 상잠장군이라 하며 무리를 소집하니 그 형세가 더욱 떨쳤다. 사람을 보내어 인케에게 고하기를 “듣건대 대당이 신라와 서약하고 백제인 노소를 묻지 않고 모두 죽인 후에 나라를 신라에게 넘겨준다 하니 죽음을 받음이 어찌 싸워서 죽는 것만 같으리요. 이것이 서로 모여 굳게 지키는 까닭이다”하였다. 인케가 글월을 지어 화복을 자세히 말하고 사람을 보내어 회유하였다. 도침 등이 군사의 많음을 믿고 교만하여 인케의 사자를 외관에 두고 비웃으며 보고하기를 “사인의 관위가 낮다. 나는 일국의 대장이니 만나기에 합당치 않다”하고

서한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다. 인궤는 군사가 적음으로 인원과 합군하여 사졸을 쉬게 하고 글월을 올려 신라와 합하여서 도모하기를 청하였다. 신라왕 김춘추가 조서를 받고 장수 김흠을 시키어 군사를 거느리고 인궤 등을 구하게 하였다. 고사에 이르매 복신이 요격하여 이를 파하니 흠이 갈령도로부터 도망하여 돌아왔다. 신라는 감히 다시 출동하지 못하였다. 얼마 아니하여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군사를 아울렀는데, 풍이 능히 제어하지 못하고 다만 제사를 주관할 뿐이었다. 복신 등은 인원 등이 고성에서 원병이 없음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기를 “대사들이 언제나 서쪽으로 돌아가는지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전송하겠노라”고 하였다. 용삭 2년(662년) 7월에 인원과 인궤 등이 웅진 동쪽에서 복신의 무리를 크게 깨뜨리고 지라성과 윤성, 대산·사정 등의 책을 함락시키어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이에 군사를 나누어 진수하게 하였다. 복신 등은 진현성이 강에 임하고 높고 험하여 요충에 해당하므로 군사를 더하여 지키게 하였다. 인궤가 밤에 신라병을 거느리고 성에 육박하여 판첩을 세웠다가 밝는 것을 기다려 성으로 들어가 800인을 참살하매, 드디어 신라의 군량수송로가 끊리었다. 인원이 군사를 더해 줄 것을 청하니 조서를 내리어 치주·청주·내주·해주의 군사 7,000인을 발하여 좌위위장군 손인사로 하여금 무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유인원의 군사를 증원하게 하였다. 이때에 복신이 이미 권세를 오로지 하더니 부여풍과도 점차 시기가 생기었다. 복신은 청병하고 굴실에 누워서 풍이 문병 오는 것을 기다려 잡아 죽이려 하였다. 풍이 이것을 알고 친근하고 신임하는 자들을 이끌고 복신을 엄살하였다. 그리고 풍은 사신을 고구려와 왜국에 보내서 군사를 청하여 당병을 막았는데, 손인사가 중도에서 이를 맞아 격파하고 드디어 인원의 무리와 합치니 사기가 크게 떨치었다. 이에 여러 장수들이 갈 방향을 의논하였는데, 혹자는 “가림성은 수륙의 요충이니 먼저 이를 치자”하였다. 인궤가 말하기를 “병법에는 실을 피하고 허를 치라고 하였으니 가림은 험고하여 치면 군사를 상할 것이요 지키면 오래 지탱할 것이다. 주류성은 백제의 근거지로서 무리가 많이 모여 있으니 만일 이것을 쳐 이기면 여러 성은 절로 떨어질 것이다”하였다. 이에 인사와 인원 및 신라왕 김법민(문무왕)이 육군을 거느리고 향하고, 유인궤 및 다른 장수 두상·부여음은 수군과 군량선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



성으로 갔다. 백강구에서 왜인을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백척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붉게 하고 해수도 빨갛다. 왕 부여풍이 몸을 빼쳐 달아나니 간 바를 알지 못하는데, 혹은 고구려로 갔다고 한다. 그의 보검을 얻었다. 왕자 부여충승·충지 등이 그의 무리를 거느리고 왜인과 함께 모두 항복했으나 홀로 지수신만이 임존성에 웅거하여 항복하지 않았다.」<sup>52)</sup>

위의 기록은 『三國史記』백제본기에 실려있는 부흥운동에 관련된 내용의 전부이다. 그렇지만 부흥운동 과정에서 전개되는 전투내용 등은 신라본기를 비롯해 열전 등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살필 수 있다.

사비도성이 함락된 이후 백제의 전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백제사상 매우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다. 비록 백제의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국난극복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 가. 복신

복신(福神)은 백제 무왕(재위 600~641)의 조카이며, 의자왕(재위 641~660)의 사촌동생이다. 복신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먼저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통해서는 출신성분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관등 또는 관직을 지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당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든지, 또는 일찌기 장수의 경력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만이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일본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일본서기(日本書紀)』를 보면, 사비도성이 함락된 직후인 660년 9월에 백제 사신이 일본에 가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 복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름은 귀실복신(鬼室福信)이며, 제3위 관등인 은솔(恩率)의 관등을 띠고 있다. 그리고 10월에는 제1위인 좌평(佐平)의 관등을 띠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유인원기공비(劉仁願紀功碑)>에는 이름은 귀실복신, 관등은 제5위인 한솔(扞率)로 기록하고 있으며, 『구당서(舊唐書)』에는 단지 구장(舊將) 복신으로만 보인다. 이와 같이 복신의 관등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사비도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복신의 관등이 부흥운동과정에

52) 『三國史記』 권28, 의자왕조.

서 승진을 거듭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복신의 활동은 무왕 28년(627년)에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전부이다.

복신이 백제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660년 사비성이 나당연합군에게 함락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이다.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되자 복신은 승려인 도침(道琛)과 함께 주류성(周留城)을 근거지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복신의 부흥군은 660년 9월 사비도성 외곽에 설치된 방어책(防禦柵)들을 모두 격파하고 군량을 빼앗은 후 사비도성을 공격하였다. 이후 부흥군은 사비도성 남쪽의 금성산에 성을 쌓고 지키고 있어 신라군은 사비도성안의 당군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 부흥군은 왕흥사암성(울성산성)에도 주둔하여 사비성을 남과 북에서 포위하였다. 이와 같이 부흥군이 강성해짐에 따라 일시에 30여개 성이 부흥군에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일본서기』 제명기 6년(660) 9월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백제에서 달솔과 승려 각종(覺從)을 보내 알리기를 “7월에 羅·唐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했음과 서부 은솔 귀실복신이 임사기성(任射岐城, 현재의 예산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며, 달솔 여자진은 구마노리성(久麻怒利城)에 근거지를 두고 흩어진 병졸을 모아 신라군을 물리쳤으며, 백제군이 그 무기를 빼앗아 다시 날째져서 당군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한다. 복신 등이 같은 나라 사람들을 모아 왕성을 지켰다. 나라사람들이 그들을 높여 ‘좌평 복신, 좌평 여진’이라고 하였다. 오직 복신만이 신기하고 용감한 피를 내어 이미 망한 나라를 부흥시켰다”고 아뢰었다.」<sup>53)</sup>

부흥운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복신 등은 661년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왕자 부여풍(扶餘豐)을 왕으로 추대하는 동시에 일본에 구원병을 요청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서북부 지방 백제유민들의 호응을 얻어 한때 사비성까지 쳐들어가는 성과를 얻었다. 661년 3월 복신은 부흥군을 정비하여 당나라 장수 유인원(劉仁願)이 지키는 사비성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신라군과 연합하여 공격하였으

---

53) 『日本書紀』 제명기 6년(660) 9월조.

나 결국 실패하였다. 그 결과 백제부흥군의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으며, 복신은 도성의 포위를 풀고 물러나 흑치상지(黑齒常之)가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임존성(任存城)으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후 복신은 스스로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 칭하고, 도침은 영거장군(領車將軍)이라 일컬으며 부흥군을 소집하여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특히 고부전투에서의 승리로 인해 “남방의 여러 성들이 일시에 모두 반란을 일으켜 다투어 복신에게 속하였다”고 하여 복신의 부흥군 세력이 크게 확대되기도 하였다.

662년 5월에는 복신 등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던 부여풍이 마침내 귀국하여 백제의 왕통을 회복하였으며, 부흥운동은 보다 조직성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풍왕이 옹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신은 도침과 반목하여 도침을 죽이고, 그 병력을 자신의 휘하에 두어 그 세력이 매우 강성해지게 되었다. 이 때 부여풍은 다만 제사를 주관할 뿐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복신이 부흥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흥군은 웅진강의 동·남쪽에서 연이어 패배하였으며, 손인사(孫仁師)가 이끄는 당군이 증원되는 상황에서 지도층의 내분에 휩싸이게 되고, 복신은 결국 풍왕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 복신이 죽은지 2달이 지난 뒤에 “신라는 백제왕이 자기의 훌륭한 장수를 목베었으므로 곧장 백제에 들어가 먼저 주류(州柔)를 빼앗을 것을 계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흥군내에서 복신의 높은 위상과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복신은 백제부흥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니 그 때가 663년 6월이었다.

## 나. 도침

도침은 승려의 신분으로 주류성을 근거지로 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도침의 신분 및 부흥운동 이전의 활동은 기록을 통해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주류성에서 복신과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통해 처음 백제사에 등장하고 있다.

도침은 복신 등과 함께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스스로 영거장군으로 칭하며, 백제유민들을 모아 임존성 등지에서 기세를 떨쳤다. 부흥군은 한때 사비수도 사비성을 포위할 정도로 세력을 떨쳤으며, 대전 부근에 위치한 지라성·웅

산성·진현성 등에 웅거하면서 신라군이 금강을 통해 웅진과 사비로 양곡을 운반하는 것을 막았다. 661년 9월에는 도침 등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던 부여풍<sup>54)</sup>이 마침내 귀국하여 백제의 왕통을 회복하였으며, 부흥운동은 보다 조직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 후 도침은 영거장군(領車將軍)이라 일컬으며 부흥군을 소집하여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661년 9월에는 복신 등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던 부여풍이 마침내 귀국하여 백제의 왕통을 회복하였으며, 부흥운동은 보다 조직성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풍왕이 옹립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침은 복신과 반목하여 결국 복신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침이 거느렸던 부흥군은 모두 복신의 휘하로 편제되었다.

비록 도침은 부흥운동 말기에 내부적인 반목으로 인해 복신에게 죽음을 당하였지만 승려의 신분으로 백제의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 다. 풍왕

풍왕은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실상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다. 풍왕은 풍(豐), 혹은 풍장(豐璋)으로도 표기되고 있는 데 의자왕의 아들이다. 그는 무왕 32년(631) 3월에 왜에 파견된 이래 그곳에 계속 체류하였다가 부흥운동이 한창인 661년 9월에 환국하여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다.

풍왕의 참여와 함께 부흥운동은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풍왕이 거쳐했던 부흥운동의 중심 거점은 주류성이었다. 그런데 663년에 접어들어 부흥군 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어 갔으며, 부흥군 사이에 내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군사를 모두 자신의 수하에 두었으나 풍왕은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만 제사를 주관할 뿐이었다고 한다. 『三國史記』는 당시의 상황을 “이때 복신이 이미 권력을 오로지 하매 부여풍과 더불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55)</sup>

54) 노중국,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몰락」, 『백제부흥운동의 재조명』, 200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학술회의, 25쪽.

55) 『三國史記』 권28, 의자왕조.

부흥군에 대한 주도권이 복신에게로 넘어간 이후 결국 부여풍과 복신 사이에 점차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복신은 청병하고 굴실에 누워서 풍왕이 문병 오는 것을 기다려 그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풍왕이 이것을 미리 알고 친근하고 신임하는 자들을 이끌고 복신을 엄살하였다. 그리고 풍은 사신을 고구려와 왜국에 보내서 군사를 청하여 당나라 군사를 막았는데, 손인사가 이끄는 당군에게 패퇴되었으며, 부흥운동은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도침과 복신의 죽음 등 부흥군 지도층의 내분은, 이들 일 개인의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제 부흥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구원군으로 파견된 2만7천여 명이 왜군도 궤멸되었다. 이 백강전투에서 왕자인 부여충승(扶餘忠勝)과 부여충지(扶餘忠志) 등은 사녀(士女)와 왜병들을 이끌고 대거 항복하였다. 이 때 풍왕은 보검 한 자루만을 남겨놓은 채 측근 몇 사람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고구려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구려로 들어 간 풍왕은 왜로 망명한 동생 부여용(扶餘勇)과 서로 통하며 대응하였다고 하나 그의 종말이 불확실하다.

## 라. 지수신

지수신(遲受信)은 백제의 부흥운동을 지휘한 장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663년 임존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로 망명한 인물이다. 그가 언제 태어났으며,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고, 단지 임존성에서 끝까지 부흥운동을 지휘하였던 사실만이 전하고 있다.

백제부흥군의 내분과倭 원병의 패배로 부흥운동의 본거지인 주류성이 함락되고, 임존성은 부흥군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다. 이에 신라군은 최후의 공격목표를 임존성에 두고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임존성을 지키고 있던 부흥장(復興將)이 바로 지수신이다. 임존성은 흑치상지가 처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곳이다. 그런데 흑치상지는 주류성이 함락되고 부흥군의 대부분이 항복하는 과정에서 당군에 항복하고 말았으며, 임존성은 그때까지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장수인 지수신에게 맡겨졌다. 임존성에 대한 공격은 10월 21일부터 시작되었다. 지수신은 남은 부흥군을 지휘하여 신라군의 침공을 잘 막아내었으

며, 결국 신라군은 11월 4일 스스로 물러갔다. 이때 신라는 삼국통일의 최고 공신인 김유신(金庾信) 등을 동원하여 공격하였으나 지수신은 끝까지 이를 잘 막아내었으니 그의 능력과 용기가 매우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당의 장수인 유인궤는 주류성이 함락되면서 항복한 흑치상지(黑齒常之)를 회유하여 임존성에 대한 공격을 맡겼다.

당시의 상황을 『三國史記』백제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인궤가 (상지에게) 진심을 보이면서 임존성을 취하여 스스로 공을 나타나게 하려하고, 곧 무기와 군량을 주었다. 인사(仁師)가 말하기를 "야심(野心)의 유무(有無)를 믿기 어려우니 만일 무기와 군량을 얻는다면 구략(寇略)의 편의를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인궤가 "내가 상여와 상지를 보매, 충성과 지모가 있으니 기회를 얻어 공을 세우게 하면 또 무엇을 의심하리요"하였다. 2인이 마침내 그 성을 함락시켰는데, 지수신은 처자를 버리고 고구려로 달아났으며, 나머지 무리도 모두 평정되었다.」

663년말 임존성의 함락을 끝으로 백제 부흥운동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기록에는 이때 지수신이 처자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하여 그의 행동이 비겁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당과 신라의 입장에서 서술된 표현으로 보아야 하며, 동료 장수들이 앞다투어 항복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백제의 재건을 위하여 싸운 지수신의 충의정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마. 기타

이들 이외에도 많은 부흥장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인물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물 이외에 기록에서 확인되는 부흥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 정무 : 좌평이며, 두시원악(정산의 두릉윤성에 비정)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나 자세한 활동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 여자진 : 달솔이며, 구마노리성(웅진성 또는 고부 고사성에 비정)에서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으나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다.

○ 부여충승(扶餘忠勝) : 왕자출신으로 구원병인 왜군과 함께 백강전투에 참여하였다가 패배하여 항복하였다.

○ 부여충지(扶餘忠志) : 왕자출신으로 부여충승 등과 함께 백강전투에 참여했다가 패배하여 항복하였다.

## 제3장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비교사적 검토

### 1. 고구려·신라의 관련자료 검토

한 시대의 가치관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 삼국시대는 백제를 비롯하여 고구려·신라가 각기 삼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충의·절의 정신은 당시를 지배했던 최상의 가치관이자 선이었다. 따라서 충의·절의 정신은 백제뿐 아니라 삼국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정신이자 가치관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상은 각각의 국가가 추구한 이념과 정치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본 절에서는 고구려·신라의 충의·절의 정신을 살펴봄으로써 백제사상에서 나타난 충의·절의 정신의 특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1) 고구려의 충의정신

고구려의 정신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충의·절의 정신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시기에 주로 발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삼국이 공통적으로 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고구려의 경우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삼국의 통일전쟁기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멸망시에 부흥운동이 그리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아 관련 자료가 많지 않다. 다만 『三國史記』 고구려본기를 통해 평상시 고구려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사상적인 맥락을 검토해 봄으로써 고구려의 충의·절의 정신의 일면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관련자료를 찾아보면, 동천왕 20년(246년) 魏의 유주자사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으로 왕이 쫓겨 남옥저까지 피신하였을 때 紐由가 식기 속에 칼을 감추어 가지고 가서 위의 장수를 찌르고 자신도 함께 죽은 사례가 있다. 당시 동천왕이 위협에 처하고,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紐由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sup>56)</sup> 국가와 왕을 위한 충의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충간한 사례를 보면, 봉상왕대 창조리가 왕의 실정에 대하여 「왕으로서 백성을 구하지 않는 것은 仁이 아니고, 신하로서 諫하지 않는 것은 忠이 아니다.」<sup>57)</sup> 또는 「신하로서 왕에게 간하지 않으면 충성된 일이 아니다」<sup>58)</sup>라고 하여 충간하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봉상왕이 충간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를 폐하고 미천왕을 옹립하였다는 점에서 왕에 대한 충의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한 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의 충의·절의 정신은 백제와 마찬가지로 멸망기에 주로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고구려에서도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 670년초 검모잠이 왕의 외손인 안순을 세워 왕으로 삼아 부흥운동을 전개한 것을 비롯하여 고연무의 2만군이 당군과 싸운 것 등 부흥운동이 있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기록이 많지 않아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경우 신라에 병합될 당시의 정국상황은 백제와는 다른 면이 있었다. 고구려에 대한 나당군의 공격은 660년 1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663년부터 665년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666년부터 전쟁이 개시되었다. 고구려는 665년 연개소문이 죽은 후 막리지 자리를 놓고 자식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666년 남생은 당에 귀부하였다. 그 해 12월 연개소문의 동생인 淵淨土는 12城 763戶 3,543人을 데리고 신라로 투항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분을 거치면서 결국 고구려는 668년 9월 21일 평양성이 함락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669년 2월에는 보장왕의 서자 安勝이 4,000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로 망명하였으며, 673년에는 고구려의 부흥군이 신라로 망명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56) 『三國史記』 권17, 동천왕 20년조.

57) 『三國史記』 권17, 봉상왕 9년조.

58) 『三國史記』 권49, 열전9 창조리조.



은 고구려 멸망 당시의 사회상황과 부흥운동의 전개과정이 백제와는 다른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구려의 경우 부흥운동 과정에서 충의·절의 정신이 발현되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귀족간의 내분과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신라와 당과의 관계 속에서 백제의 부흥운동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백제와는 달리 그렇게 치열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 2) 신라의 화랑정신

신라는 일찍부터 강렬한 道義的 정신인 道德·倫理思想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氏族制度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데,<sup>59)</sup> 화랑도 조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화랑도의 武士道精神은 忠孝·信義·武勇 등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들 사상은 국가사회가 발전하고 유교사상이 유입된 이후 이들과 결합하여 忠과 孝를 기조로 국가에 봉사하는 정신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삼국통일 전쟁 수행기에 더욱 빛을 발하여 전쟁에 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원광에게 세속오계를 청해 들은 貴山이 진평왕 19년(602) 백제와의 전쟁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것<sup>60)</sup>이나 황산벌 전투에서 반굴과 관창의 죽음 등은 모두 화랑도의 정신에 입각한 신라인의 충의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충의정신의 사상적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신라에서 유교의 역할은 교육적·윤리적·사상적·정치적 각 분야에 걸쳐 폭넓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윤리적 덕목에서 ‘忠’의 덕목이 전통적인 공동체적 관념과 결합되어 국가적 단결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됨으로써 윤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윤리도덕의 실천도는 원광의 세속오계에 나타나 있듯이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화랑도의 교육이념이자 실천강령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교육적인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sup>61)</sup> 신라의 경우 충의·절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많은데, 특징적인 것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59) 이병도, 「신라문화의 특징」, 『한국고대사연구』, 1987, 769쪽.

60) 『三國史記』 권45, 열전5 貴山傳

61) 홍순창, 「신라유교의 역할」, 『신라종교의 신연구』, 1984, 29~30쪽.

먼저 충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진평왕대(579~632) 병부령 김후직은 왕이 자주 사냥을 나가 정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 충간을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자 죽으면서까지 신하의 도리를 다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나는 남의 신하가 되어 임금의 나쁜 행동을 바로잡아 구하지 못하였다. 아마 대왕이 놀음을 그치지 않으면 패망에 이를 것이니, 이것이 내가 근심하는 바다. 비록 죽더라도 반드시 임금을 깨닫도록 할 것이니, 나의 뼈를 대왕이 사냥 다니는 길가에 묻으라”는 유언을 남기니 아들들이 모두 그렇게 했다. 어느 날 왕이 출행할 때 도중에서 먼 소리가 나는데 “가지 마시오”하는 것 같았다. 왕이 돌아보며 “소리가 어디서 오는가” 물으니 종자가 고하기를 “저것이 후직 이찬의 무덤입니다”하고, 후직이 죽을 때 한 말을 얘기했다. 대왕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대의 충간이 사후에도 잊지 않으니 나를 사랑함이 깊도다. 만일 내가 끝내 고치지 않으면 幽明간에 무슨 다투로 대하겠는가”하고 마침내 종신토록 다시 사냥을 하지 않았다.」<sup>62)</sup>고 한다.

국가관 내지는 충의정신을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원광의 국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승려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국가관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승려들을 비롯해 신라인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國家觀(忠)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주목되는 것은 「자기가 살려고 하여 남을 멸망시키는 것은 승려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왕의 땅에 살고 왕의 水草를 먹고사는데 어찌 감히 왕명을 거역하겠는가<sup>63)</sup>라고 하여 乞土表를 지어 隋에 보낸 사실이다.

또한 600년 수나라에서 귀국한 직후 귀산과 추항 두 젊은이가 찾아와서 종신토록 지킬 誠銘을 청하자 원광이 世俗五戒인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의 다섯 항목을 일러 주었다. 이 가운데 임전 무퇴와 살생유택은 모두 忠의 윤리에 따르는 종속덕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sup>64)</sup> 당시 국가상황을 반영한 신라인의 국가의식과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귀산과 추항은 602년 백제와의 아막성 전투에서 끝

62) 『三國史記』 권45, 열전5 金后稷條.

63) 『三國史記』 권4, 진흥왕 30년조.

64) 이완재, 「삼국시대의 사상과 가치관」, 『한국학입문』, 1983, 223쪽.

까지 싸우다 전사하였다.

또한 태종무열왕대 실제사(實際寺)의 승려였던 취도(驍徒)는 “내가 듣기로는 중이 된 자로 상등은 불도를 닦아서 불성을 깨닫는 것이요, 다음은 불도를 일으켜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의 형상은 중과 같을 뿐 한 가지의 선도 취할 만한 것이 없다. 차라리 종군하여 살신보국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 하고 법의를 벗고 군복을 입은 다음, 이름을 고쳐 취도라고 하였다. 이후 종군하여 전쟁터에서 적 수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sup>65)</sup>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신라의 젊은이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壬申誓記石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내용을 보면,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우면 모름지기 충도를 실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 따로 앞서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서하였다. 詩·尙書·禮傳을 운독하기를 맹서하되 3년으로써 하였다」고 한다. 임신서기석의 제작연대는 화랑도의 활약기로 추정되고 있는데,<sup>66)</sup> 국가에 대한 충성과, 유교 사상의 습득에 대한 신라인의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라인의 유교사상과 도덕에 대한 관념을 비롯해 실천의지를 보여준다.

이들 이외에도 삼국시대 말기 신라인의 충의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는 다수 확인된다. 이 가운데 황산벌전투에서 나타난 사례를 보면,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계백의 오천결사대와 전투 중에 불리한 상황에서 장군 흠순은 그의 아들 반굴에게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을 다하는 것 만한 것이 없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성된 일을 하는 것만 같은 것이 없는데, 이런 위급함을 보고 목숨을 던지는 것은 충효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이에 반굴은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 전사하였으며,<sup>67)</sup> 품일은 관창이 계백장군에게 붙잡혀 죽음을 당한 상황에서 “國事를 위해 죽었으니 후회할 것이 없다”<sup>68)</sup> 라고 하여 신라군의 사기를 돋우었다. 이로 인해 계백이 이끄는 오천결사대는 결국 황산벌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다.

65) 『三國史記』 권47, 열전7 驍徒傳.

66) 이병도, 「壬申誓記石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1987, 689쪽.

67) 『三國史記』 열전7, 김영운전.

68) 『三國史記』 권47, 열전7 관창전.

신라인의 忠義에 대한 인식은 문무왕이 沈那와 素那 父子의 장렬한 죽음을 듣고, “父子가 國事를 위해 용맹을 다했으니 가히 濟世의 忠義라 이를 것이다”<sup>69)</sup>라고 한 표현에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교의 윤리적 체계에 있어서 孝가 가장 근원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충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가족윤리 보다는 국가윤리가 중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라 김유신의 아들인 원술량이 석문전투에서 패하여 많은 부하를 희생시키고 돌아왔을 때 김유신은 부자의 정을 끊고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의 어머니 역시 모자의 정을 끊었다.<sup>70)</sup>

이러한 인식은 한국 고대에 있어서 충의 사상이 유교 본래의 충효사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고대사회에서 충효에 대한 개념은 항상 국가와 시대정신에 따라 그 뜻을 달리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충효사상은 삼국통일 이전 국가간의 긴급한 군사적 상황 하에서 극에 달하였으며, 통일 이후에는 둔화되고 있다.<sup>71)</sup> 그리고 삼국간 사상적인 측면에 있어서 각각의 특징이 있겠지만 삼국이 처해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 비슷하였으며, 특히 삼국간의 적대관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교류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가치관의 핵심은 거의 비슷하였다고 하겠다.

다만 신라가 궁극적으로 삼국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승자의 입장에서 많은 기록이 남아있으며, 또한 통일의 당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과장 내지는 미화된 부분이 있을 것이나 신라사상 가운데 충의·절의 정신은 삼국통일기 신라의 시대정신이며, 국가정신이었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

69) 『三國史記』 권47, 素那傳.

70) 『三國史記』 권43, 열전3 金庾信下條.

71)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1984, 420쪽.

## 2.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성격과 평가

### 1) 충의·절의 정신의 시기별 성격변화

백제시대는 왕도의 이동에 따라 한성시대-웅진시대-사비시대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변동을 초래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천도는 단지 지리적 변동에 그치지 않고 통치체제의 변화를 비롯해 왕권 및 국가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는 충의·절의와 같은 사상적 측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사상의 시기별 성격변화를 통해 충의·절의 정신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한성시대

한성기의 忠義·節義 精神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굳이 찾아본다면 고이왕 9년에 질을 후보로 삼으면서 그 이유를 성품이 충의롭고 일을 함에 있어 실수가 없었다고 한 기록<sup>72)</sup>이 참고된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실상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자료를 통한 이해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근초고왕대 박사 고흥이 『書記』를 편찬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박사의 존재는 유교의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 볼 때 근초고왕대 유교교육이 보편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기관의 설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근초고왕대는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의 형성기로 볼 수 있다.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왕 중심의 질서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왕에 대한 충의 개념 등이 성립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근초고왕대를 전후하여 국가와 군왕에 대한 충의·절의 개념도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근초고왕대는 활발한 대외팽창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직하고 용감한 신하와 장수들이 요구되었을 것이며, 그에 부합하는 사상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충의·절의 정신은 국가적 어려움이 처한 상황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

72) 『三國史記』 권24, 고이왕 9년조, 「夏四月 以叔父質爲右輔 質性忠毅 謀事無失」.

다. 한성시대 백제가 가장 난관에 봉착했던 시기는 장수왕의 남진으로 인한 한성의 함락과 개로왕의 죽음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충의와 절의를 다한 신하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아서 전하는 자료가 없어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개로왕이 고구려군에 의해 왕도가 함락된 이후 문주에게 이르는 말 가운데 “姦臣의 말을 들어서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sup>73)</sup>에서 姦臣의 존재가 보이는데, 당시 간신만 있었다기보다는 이와 대립되는 충신도 있었을 것이다. 단지 개로왕이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국가경제와 백성들을 파탄에 몰아넣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충신들의 존재나 그들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더 이상의 언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데 節義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시기에 보이고 있다. 바로 도미부인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 내용이 형성된 시기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개로왕대일 것으로 추정되며, 개로왕의 무단적인 정치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평민으로 기록된 도미부인의 행위는 당시의 관점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는 당시 절의관념이 매우 높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한성기는 백제가 국가적 기틀을 확립하고,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어 가는 시기였다. 따라서 국가와 왕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계가 마련되고는 있었지만 완비되지는 않았던 시기로 파악된다. 그러나 유교사상을 비롯해 불교 등이 유입되어 정신문화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유교사상은 충의·절의 개념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웅진시대

한성함락과 웅진으로의 천도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충의·절의 정신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웅진기의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웅진천도 이후 왕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문주왕을 도와 웅진으로의 천도와 신도 건설을 추진한 인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로 문주왕과 함께 등장하는

73) 『三國史記』 권25, 개로왕 21년조.

목협만치와 조미걸취 등이 있지만 이들의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며, 단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sup>74)</sup> 그러나 이들이 충신이었는가의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웅진천도로 인한 초기의 정치적 혼란은 동성왕대에 와서 안정을 이루게 된다. 특히 동성왕은 다양한 정치세력을 등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한 이후 전제 권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왕 21년(499년) 여름에 크게 가물어 흉년이 들었을 때 신하들이 창고를 열어 진휼할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다.<sup>75)</sup> 또한 그 이듬해에는 임류각을 화려하게 짓고, 연못을 파서 기이한 새를 기르는 등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자 신하들이 간언을 하였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다시 諫言하는 신하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궁문을 닫아 버리기까지 하였다.<sup>76)</sup>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당시 신하들은 동성왕의 정국운영에 동조하는 부류와 그의 실정을 간언한 부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동성왕의 실정을 간언한 신하들은 충의의 인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웅진기에서 근초고왕대의 전성기를 회복한 것은 무령왕이다. 무령왕은 즉위 초 동성왕을 시해한 백가의 난을 진압하여 대내적 안정을 가져왔으며,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여 개로왕대 상실한 한강유역에 대한 회복에 나섰다. 그 결과 고구려를 여러 번에 걸쳐 격파하였으며,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공언할 정도로 국력을 회복하였다.<sup>77)</sup> 이와 같은 무령왕의 정책은 왕 개인의 노력과 함께 그를 도운 많은 신료계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비록 충신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을 통해 나타나지는 않지만 무령왕대에 이룩된 많은 업적들을 통해서 볼 때 충신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웅진기는 갑작스런 천도에 따른 왕권의 위축과 국가조직의 해체로 인한 충의정신이 약화되었을 것이며, 또한 천도후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었다. 따라서 충의 및 절의를 포함한 정신문화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물도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74) 『三國史記』 권25, 개로왕 21년조, 「文周乃與木荔滿致 祖彌桀取 南行焉」.

75) 『三國史記』 권26, 동성왕 21년조.

76) 『三國史記』 권26, 동성왕 22년조.

77) 『三國史記』 권26, 무령왕 21년조, 「稱累破高句麗 始與通好 而更爲強國」.

성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3) 사비시대

백제시대 문화는 사비기에 와서 그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백제 문화의 성숙과 함께 주변 국가로의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본에 전수된 백제 문화는 일본 문화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이는 백제의 정신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왕은 사비로 천도한 이후 3년 뒤에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모시박사를 비롯한 열반경 등 경전과 工匠·畫師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후에 강례박사를 청하였는데, 이때 양나라에서는 예학으로 이름이 높았던 육후(陸詡)라는 인물을 보냈다.<sup>78)</sup>

특히 성왕대는 일본에 불교를 전해주었으며, 실제로 사비도성 안에는 많은 사탑 등이 세워졌다. 현재 사비도성 내부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로는 정림사지,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쌍북리폐사지, 구아리 백제유적, 부소산 폐사지, 전천왕사지, 가탑리사지 등이 있으며, 주변에 위치한 것으로는 왕흥사지, 호암사지, 임강사지, 용정리사지, 신리사지, 밤골사지, 관음사지, 구교리사지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미조사된 유적까지 감안한다면 매우 많은 사찰들이 도성 내부와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주서』 등 중국사서에 백제에는 “승려와 사탑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 기록과 부합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비시대에 불교는 지배적인 사상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왕대의 계율주의적 불교사상은 백제인들의 사상체계를 구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시대의 충의·절의 정신이 극도로 발현된 것은 사비시대 말기 및 부흥운동 과정에서이다. 먼저 사비시대 말기에 나타난 충의·절의 정신은 국가존망의 기로에서 목숨을 바쳐 진충보국하는 행동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낙화암과 삼천궁녀로 상징화된 여인들의 정절 또한 백제사상의 특징적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부흥운동기에 더욱 두드러졌는데, 예산 임존성에서 비롯된 부흥운동은 왕도의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부흥군이 사비도성을 포위하는

78) 『陳書』卷33, 列傳27 儒林 鄭灼傳附 陸詡傳.



단계에까지 이르기에도 하였다. 비록 부흥운동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분열과정을 거쳐 실패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신은 후대 역사에서 귀감이 되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발현되었다.

백제의 이러한 사상은 법제상에도 반영되어 현실화되었다. 비록 문헌을 통해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서』를 비롯한 몇몇 기록을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其刑罰 反叛・退軍及殺人者 斬, 盜者 流 其贓兩倍徵之, 婦人犯姦者 沒入夫家爲婢」<sup>79)</sup>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반역과 전쟁에서 후퇴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 및 국왕중심의 질서체계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특히 전쟁에 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충성을 다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부인을 간음한 자를 남편 집의 노비로 삼은 것은 부인들의 정절을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는 당시 국가・사회적으로 중시된 관념과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충의・절의 사상이 중시되었음을 보여준다.

## 2) 후대의 평가

충의・절의 정신은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역사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럼 후대에 나타난 평가를 통해 이들이 보여준 가치를 재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경상도 관찰사 金麟孫이 機張에 流配되어 있는 生員 李宗翼의 上疏를 올려 보냈는데, 이때 성충의 예를 들어 충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신이 전에 듣기로는 신라의 김유신이 당나라 蘇定方과 함께 백제를 멸할 때에 진 佐平 成忠이 계책을 말하기를 ‘당나라 군사는 白江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의 군사는 炭峴을 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간신이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성충은 귀양중에 있는 몸이니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드디어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 신하의 忠義로운 마음이야 유배지에 있다고 하여 다를 수

79) 『周書』異域列傳 백제조.

있겠습니까.」<sup>80)</sup>라고 하여 성충이 유배지에서도 충의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 내용은 성충이 아니라 홍수의 사례를 성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의 충절이 조선시대에까지 귀감이 된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조 16년 병조판서였던 李珣가 상소하여 국가의 일을 왕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성충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백제 의자왕의 어둡고 용렬한 것이야 본래 말할 것도 없지만 당나라 玄宗처럼 명철한 지혜로서도 선견지명에는 어두웠으니, 의자왕이 성충의 말을 쓰지 않은데 대해 후회한 것이나 현종이 曲江公에게 제사를 지내준 것이 亂亡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sup>81)</sup>라고 하여 성충이 의자왕에게 충언을 한 사실과 이를 의자왕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국가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조 35년(1602년)에는 전대 충신의 무덤을 정비하는 중에 성충과 계백의 무덤을 찾아 보수하도록 하였으나<sup>82)</sup> 당시 봉분의 소재가 확인되지 못하였다.<sup>83)</sup> 이후 광해군 2년(1610년)에 다시 전대의 대표적인 충신들에 대한 봉분을 보수하라는 왕명을 내리는 중에 백제시대의 인물로는 성충과 계백이 언급되고 있다.<sup>84)</sup>

이와 같이 전대의 대표적인 충신들 가운데 백제시대의 인물로는 계백과 성충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조선시대에도 충신으로 역사의 귀감이 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 결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현창사업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들에 대한 후대인들의 인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東國通鑑』을 보면 조선초기의 성리학자인 權近은 의자왕이 성충의 충언을 듣지 않아 나라가 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조때의 학자인 吳希吉이 선현의 전기를 모아 놓은 문집인 『韜庵集』의 「성충기」에서는 의자왕이 성충과 홍수의 말을 따르지 않아 나당군에게 패하였다고 하였다. 柳成龍은 『西厓集』

80) 『朝鮮王朝實錄』 中宗 27년(1532) 3월 1일.

81) 『朝鮮王朝實錄』 宣祖 16년(1583) 4월 1일.

82) 『朝鮮王朝實錄』 宣祖 35년(1602) 壬寅 2월 5일.

83) 『朝鮮王朝實錄』 宣祖 36년(1603) 9월 9일.

84)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2년(1610) 2월 6일.

「의열사권선당기」에서 성충과 홍수가 죽음을 무릅쓰고 충간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백제시대 충의와 절의를 보인 인물 가운데 후대인의 평가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계백의 경우에는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조선초기의 성리학자인 권근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는 「階伯이 명령을 받고 장군이 되어 군사를 독려하여 장차 출전하려 함에 먼저 그 妻子를 죽였으니 그 도리에 어긋남이 심하다. 비록 반드시 국난에 죽겠다는 마음이 있다고는 하나 힘껏 싸워 적을 이기겠다는 계책이 없는 것이니, 이것은 먼저 사기를 상실하고 패배를 취하는 일이다. 장차 진실로 인재를 얻는다면 적은 것으로써 많은 무리를 물리치고, 약한 것으로써 강한 것을 제압하는 것이 兵家の常事다. … 지금 백제는 위로는 君主가 혼미하고, 아래로 신하는 간교하여 어진 사람은 쫓겨나고 不肖한 사람은 지위에 있으니 능히 장차 그 인재를 얻을 수 있겠는가. 계백의 狂悖하고 殘忍함이 이와 같으니 이는 싸우지 아니하고 스스로 굴복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계백이 전쟁에 앞서 가족을 죽인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sup>85)</sup> 다만 관창을 사로잡았으나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고, 황산벌전투에서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것 옛날에 있어서 名將의 遺風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안정복은 권근의 이러한 평에 대하여 통렬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계백이 장수가 되어 스스로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妻子가 욕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모두 먼저 죽인 것이다. 그리고 싸움에서 패하자 굽히지 않고 죽었으니 그가 처자를 죽인 것은 비록 中庸에 벗어난 것일지 모르나 이로써 심하게 혈뜰을 것은 없다. 權近이 계백을 논하기를 첫째, 無道하고, 둘째, 狂悖하고 殘忍하다 하였으니 어찌된 말인가, 만약 士氣를 잃어서 패배를 취한 것을 죄로 삼는다고 하면, 사람을 논하는 자는 마땅히 그 志節을 논할 따름이지 成敗와 利鈍을 꾀할 바는 아니다. … 계백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도 그 몸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 처자를 아꼈겠는가? 그 처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 君父를 배반하였겠는가? 백제가 망할 때 한 사람의 忠臣・義士와 나라를 따라서 생명을 버리는 자가 없었는데 홀로 계백이 節義를

---

85) 『東國通鑑』 권7 庚申秋 7월조.

잡아서 두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 이것이 옛 사람이 말한 바 「나라가 망하면 함께 죽는다」는 것이다. 군자는 사람을 사랑함에 德으로써 하니 계백과 같은 사람이 작은 실수로 큰 節義를 가벼이 하였겠는가? 이것은 가히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安鼎福은 「무릇 장수가 되는 道는 무엇보다도 내 집과 내 몸을 잊은 뒤라야 士卒들의 죽을 결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니, 만약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살고자 하는 마음을 둔다면 軍心이 해이되어 각각 제 살 궁리와 처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법이다. 이것이야말로 더없이 사기를 沮喪시키는 것이다. 權氏는 계백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병법도 몰랐었다.」라고 하여 계백이 전쟁에 앞서 가족을 죽인 것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정복이 계백의 행위와 황산벌전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을 하고 있다.

「險地에 의거해서 진영을 설치한 것은 智요, 싸움에 임해서 무리에게 맹세한 것은 信이며, 네 번 싸워 이긴 것은 勇이요, 官昌을 잡았다가도 죽이지 않은 것은 仁이며, 두 번째 잡았을 때 죽여서 그 시체를 돌려보낸 것은 義요, 衆寡不敵해서 마침내 한번 죽어버린 것은 忠이다. 삼국시대에 忠臣과 義士가 물론 많았지만 史傳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마땅히 階伯으로 으뜸을 삼아야 할 것이다.」<sup>86)</sup>

라고 하여 안정복은 계백의 황산벌전투와 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평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충과 홍수, 계백 등의 충절은 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들의 충의정신은 백제의 사상 내지 정신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sup>87)</sup>

그리고 정절과 관련해서는 도미부인과 삼천궁녀에 대한 기록이 조선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1797년(정조 21년) 이병모 등이 편찬한 『五倫行實圖』에 도미

86) 『東史綱目』第4 上 庚申 秋七月條.

87) 송인창, 「백제유학에 나타난 도의정신」, 『백제의 종교와 사상』, 1994, 179~180 쪽.

부인의 정절도가 내용과 함께 그려져 있는데, 도미부인의 정절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삼천궁녀에 관한 내용은 고려후기에 일연이 쓴 『三國遺事』에 처음 보이고 있으며, 이후 『朝鮮王朝實錄』을 보면 영조 34년에 창절서원을 개수하도록 하는 중에 “낙화암이 있는데, 그때 궁인들이 사절(死節)하였기 때문에 ‘낙화암’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토민들이 사당을 세운 것도 또한 치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이들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보아 삼천궁녀의 절의정신이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존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제4장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방안

### 1. 충의·절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 필요성

그러면 왜 백제시대의 충의·절의 정신이 현재까지도 계승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들 정신이 국가를 존속시키고 진정한 사회정의를 유지시켜 주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백제의 문화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1992년 11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조성목적은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정통성을 오늘에 되살리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7개의 기능촌(개국촌, 왕궁촌, 전통민속촌, 장제묘지촌, 산업교역촌, 군사통신촌, 풍속종교촌)과 역사민속박물관을 조성함으로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여 민족문화의 배움터로 삼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의도하였다. 이 가운데 7개의 기능촌은 주로 백제시대 물질문화의 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백제의 역사와 문화·사상의 전개 과정에 대한 것은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을 통해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내용을 검토해 보면, 물질문화 중심의 백제사 복원에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다. 박물관의 세부 전시연출 계획을 보면, 1. 철백년 역사(제1전시실), 2. 생활문화(제2전시실), 3. 정신세계(제3전시실), 4.

백제계승(제4전시실), 5. 기획전시실, 6. 어린이체험실, 7. 전시 사인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제의 충의·절의 정신은 이 구성 중에서 ‘3. 정신세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백제의 제사유적’, ‘백제의 묘제’, ‘무령왕릉’, ‘천신에 대한 제사’, ‘미륵불국토’ 만을 다루고 있을 뿐 어디에도 백제의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백제사의 복원이 자칫 물질문화 중심의 복원에 치우쳐 그 내면에 흐르는 사상과 정신에 대한 부분은 소홀하게 다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백제사의 복원이 본질적인 측면이 아닌 허상에 대한 복원 내지는 형식적 재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백제사 복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질문화의 내면에 흐르는 정신과 사상에 대한 이해와 구명이 필요하다.

또한 충의·절의 정신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상의 현대적 계승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사회현상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왕조국가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배와 피지배라는 예속관계 속에서 충에 대한 거부감이 만연되어 있으며, 그 본질이 왜곡된 면이 있다. 과거의 왕권중심 사회에서는 충이 오직 임금을 위한 것이었으나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충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충도 민주사회를 가장 적절한 안식처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88)</sup> 결국 충의·절의 사상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는 이들 개념이 지닌 본질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현실적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6전쟁 등을 겪으면서 혼란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전통사상의 단절과 새로운 서구식 사고방식의 유입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였으며, 나아가 1970년대 이후에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물질문화의 발전에 따른 물질만능주의 사상의 증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나 도덕적 윤리의식의 부재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공공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전통사상의 현대적 도입이 필요하며, 백제시대의 충의·절의 정신은 이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

88) 장덕순, 「충효사상이 현대에 서식할 수 있을까」, 『충효사상』, 단국대출판부, 1977, 215쪽.

현재 충남은 5대 정신으로 충효정신·절의정신·선비정신·예의정신·개혁정신을 내세우고 있다.<sup>89)</sup> 이 가운데 충효정신과 절의정신은 충남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백제시대까지 소급되고 있으며, 비단 충남정신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사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새로운 정신문화의 재창출이 요구된다.

## 2. 충의·절의 정신의 현대적 계승방안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忠과 孝를 윤리의 근간으로 삼아 왔다. 그 결과 각종 역사서에는 忠臣·孝子·烈女에 대한 기록을 다수 남겨 놓았다. 『三國史記』 열전을 비롯해 『三國遺事』 권9의 <孝善>條, 『高麗史』 열전에 忠義 6인, 孝友 17인, 烈女 13인에 대한 기록,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8권중 孝 8권, 烈 8권, 忠 1권, 기타 1권 등 우리 선조들이 충과 효를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사상은 국가와 연장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사상을 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현재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재해석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백제시대의 충의·절의 정신을 현대에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사실 백제시대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되어 일반인들로서는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현재 남겨져 있는 각종 문헌기록과 이들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유물이다. 따라서 우선 관련 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 사상에 대한 실체를 구명하고,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존하고 있는 유적·유물에 대한 보존·정비를 통해 직접 보고, 체험을 통해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9) 충청남도,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 1991.

## 가. 관련유적의 정비·활용을 통한 사회교육의 실시

충·효와 같은 전통사상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또한 현실 사회와 괴리감이 있어 단지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만 본질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물질중심의 가치관과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다분히 관념적이면서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이들 사상을 교육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더욱이 백제의 경우 시기적으로 현대와 너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 자체도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 정신문화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사회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 경우 관련유적과 유물을 통한 체험적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다.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체험적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적과 유물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 황산벌전적지와 계백묘소

황산벌전적지는 백제 계백장군이 5천결사대를 이끌고 신라의 5만군과 결전을 벌인 곳으로 현재 연산면 신량리 일대를 포함한 황산리 및 사청벌 일대에 비정된다. 660년 7월 9일 신라군이 탄현을 넘어 황산벌로 진격하자 의자왕은 계백으로 하여금 5천 결사대를 이끌고 이를 막도록 하였다. 황산벌에 이른 계백은 험준한 지형을 가려 3개의 군영을 설치하고 신라군을 기다렸으며, 이에 신라 김유신은 군사를 3도로 나누어 전투를 하였다. 처음 4차례에 걸쳐 백제군이 승리하였으나 결국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여 패하고, 계백을 비롯한 5천결사대는 황산벌전투에서 최후를 마쳤다. 황산벌전적지에는 계백이 삼영을 설치하였던 산성이 남아있는데, 삼영은 산직리산성·모촌리산성·황령산성에, 본진은 청동리산성에 두어졌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계백 장군의 묘소는 논산시 부적면 신평리 산4번지에 위치하며,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제74호이다. 장군이 황산벌전투에서 전사한 뒤 그의 충성어린 의로운 죽음을 보고 백제 유민들이 장군의 시신을 거두어 은밀하게 가매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후 백제의 유민들이 묘소 인근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묘제를 지내오던 관행이 이어져 오다가 조선 숙종 6년에 충곡서원을 건립하고 계백장



군 위패를 주향으로 모시고 향사를 지내 오다가 근래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증 작업을 하게 되었다. 묘소는 1966년에 찾았는데, 당시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주민들이 다시 봉분을 조성하였다.

현재 계백장군 묘소 일원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백제군사박물관이 건립되어 황산벌전투를 비롯한 계백장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성이 더욱 크다. 이 때 단순한 유물의 전시나 물질적인 복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계백의 정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현대적 재조명을 통해 학생 및 일반인 등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계백장군 유적전승지는 유적과 연구, 교육적 공간까지 확보함으로써 현장교육을 위한 좋은 여건을 구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유적과 각종 시설물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 도미부인 사당(貞節祠)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선림사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선림사 위의 산사봉과 교성리의 도미항, 천북면 낙동리의 빙도지역을 『三國史記』 열전에 나오는 도미설화와 관련된 곳으로 비정하여 이곳에 도미사당을 세웠다.

그런데 도미설화는 경남 진해시 청안동에도 전해져 오고 있으며, 이곳에 도미묘로 전해지는 무덤이 위치하고 있었다. 도미무덤은 얼마 전(2003. 6. 10) 경남 청안동 일대가 임해공단으로 개발됨에 따라 보령의 도미부인 사당 옆으로 옮겨왔다. 또한 경기도 광주 창우리의 팔당나루는 도미나루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도미설화와 관련된 곳은 여러 개소가 있는데, 전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설화를 비롯하여 지역적 위치 등으로 보아 보령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사 역사적 사실성이 적다 하더라도 설화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현재 보령에서는 도미부인 사당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지역개발 및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절의정신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비록 도미설화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설화 자체가 지닌 상징성과 백제사상 도미부인의 존재가 지닌 실재성에 근거할 때 그 활

용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 ○ 부소산 낙화암(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10호)

부여읍 쌍북리 산1에 위치한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망했을 때 백제의 궁녀들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고자 절벽에서 몸을 던져 죽은 장소로 전한다. 『三國遺事』 태종 춘추공조에 의자왕이 후궁들과 더불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자결할 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고 하여 이곳에 이르러 강물에 몸을 던져 죽어 墮死岩이라 전해온다고 적고 있다. 낙화암이라는 말은 후세 사람들이 미화한 이름이다. 절벽은 화강편마암으로 40~50m 높이의 단애를 이루고 있으며, 강 수면에 이르러서는 한번 꺾인 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에 송시열의 글씨로 전하는 「낙화암」이라는 각자가 있다.

비록 삼천궁녀의 이야기에 과장이 있지만 백제 멸망기에 나타난 백제여인의 절의정신을 왕도라고 하는 지역성과 연계할 경우 교육적 자료로서 충분한 활용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절의정신을 현대적인 사상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이있는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부소산 궁녀사

부소산 태자골에 위치하고 있다. 삼천궁녀의 절의를 추모하고 후세에 기리기 위해 1965년에 세운 사당으로 궁녀도를 모시고 매년 10월 백제문화제때 제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삼천궁녀의 절의정신을 되새겨 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관광자원과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부소산 삼충사

백제의 3충신인 성충·홍수·계백의 위국충절을 추모하고 그 뜻을 후세에 기리기 위해 1957년에 건립한 사당으로 1981년에 중건하였다. 사당 중앙에 좌평 홍수공상, 왼쪽에는 좌평 성충공상, 오른쪽에는 계백장군상을 모셨으며, 매년 10월 백제문화제 때 삼충제를 지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삼충신이 보여준 충의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삼충사를 교육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충화면 팔충리 주변

충화면은 부여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각종 지리서 고적조에 의하면, 백제의 충신인 성충·계백 등 8인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팔충리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팔충신으로는 성충·계백을 비롯해 홍수, 그리고 황산벌전투에서 순절한 범황사의 승장 5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사서에 남아서 전해지는 실존 인물은 성충·홍수·계백 등 3인뿐이다. 이들 지역에는 계백이 무술을 연마했다고 하는 천등산을 비롯해 백제 충신들이 넘나들었다는 백충재, 장수발자국바위, 표충암, 팔충신을 제향하는 팔충사 등 팔충신과 관련된 각종 설화·전설을 비롯한 지명 등이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팔충리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정비계획을 비롯한 활용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들 지역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계백을 비롯한 팔충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답사루트로 활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 부흥운동의 거점, 임존성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에 위치. 포곡형의 석축산성으로 둘레는 2,426m이며, 사적 제90호로 지정되어 있다. 임존성은 사비도성이 함락된 이후 흑치상지를 중심으로 최초로 부흥운동이 전개된 곳이며, 부흥운동의 핵심 인물인 복신·도침 등이 함께 부흥군을 지휘하였던 주요 거점 성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663년 부흥운동의 거점성인 주류성을 비롯해 많은 거점성들이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임존성만이 남아 최후까지 저항하였다. 이때 부흥장은 지수신이였다. 그러나 처음 임존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흑치상지 등이 당에 항복한 이후 오히려 임존성을 공격함으로써 결국 지수신은 패배를 하고 백제의 부흥운동을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존성은 백제 부흥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자 마지막 거점이었다.

현재 임존성은 성벽복원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현장교육에 적합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임존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던 주변 산성을 연계하여 답사루트를 개발할 경우 백제시대 부흥운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나. 학교교육을 통한 계승

우리 사회는 8·15해방 이후 어려운 사회적 여건과 급격한 경제변화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으며, 특히 경제적 발전에 따른 물질중심의 이기적인 가치관이 팽배하여 있다. 그 결과 인간중심, 사회중심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인간성 경시풍조와 도덕성의 상실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크지 않아 여전히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 및 윤리사상의 계승을 위한 전통사상의 교육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의 문화와 전통사상에 대한 교육은 일차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교육은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팽창시켜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백제시대의 충의·절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정신문화로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될 필요가 있다. 대개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교육은 윤리교육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윤리사상은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弘益人間」으로부터 비롯되어 이후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유교와 불교사상이 융합되어 그 근간을 형성하여 왔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도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서 성립되었다. 따라서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교육도 윤리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을 포함한 전통윤리사상에 대한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sup>90)</sup>

첫째, 인간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전통사상 속에 내재하여 있는 인간중심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함으로써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과서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적으

---

90) 심우섭, 「전통윤리교육의 강화방안」, 『한국의 교육과 윤리(1)』, 1991.

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다양화하고, 현장학습과 실천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전통적인 가치관과 외래유입의 사상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찾아내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넷째, 전통적인 사상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현대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방법을 통해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이 지닌 가치를 인식시켜 가야 할 것이다. 다만 충의·절의 정신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 등은 현대적인 여러 가치와 구조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괴리감이 상존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백제시대 전통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현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재창조가 필요하다.

#### **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및 각종 관련시설의 활용**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백제문화의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백제역사재현단지를 비롯해 유적지 등에 각종 전시관이 건립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박물관과 전시관 등을 활용한다면 백제시대 전통사상을 연구·계승하고, 이를 교육하는데 매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 백제역사민속박물관**

백제의 역사와 문화·사상의 전개과정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백제역사재현단지 안에 건립하였다. 따라서 백제의 정신문화를 전시·교육할 수 있는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의 전시내용이 물질문화 중심의 백제사 복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백제의 충의·절의 정신과 같은 정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백제사의 복원이 물질문화 중심의 복원이 아닌 명실상부한 백제정신의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백제군사박물관

백제군사박물관은 논산시 부적면 신평리 계백장군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묘소 인근에 세워지고 있다. 이 박물관은 계백 장군의 황산벌전투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백제시대 군사문화를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논산지역은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국방상 비중이 높았던 곳이다. 특히 계백 장군의 황산벌전투가 벌어졌으며, 부흥운동기에는 동방성이었던 덕안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따라서 백제군사박물관은 계백을 비롯한 5천결사대의 충의정신을 비롯하여 부흥군의 정신을 연구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단지 전시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 및 사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 론

이상에서 백제의 정신문화를 충의·절의 정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과정에서 백제시대 정신문화에 대한 관련 자료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빈약한 자료나마 정신사적인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이들 정신은 사상사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제 정신문화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충의·절의 정신의 사상적 배경을 고찰하고, 나아가 각 시기별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백제의 충의·절의 정신은 유교와 불교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도교사상도 지배층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이들 사상과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충의·절의 사상이 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발현된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는 시기별로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백제가 국난을 당했던 시기는 475년 한성의 함락과 개로왕의 죽음, 그리고 백제멸망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475년을 전후한 시기의 자료는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주로 백제멸망기와 부흥운동기의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백제의 충의·정신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은 백제말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고구려·신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충의·절의 정신을 살펴봄으로써 주변국과의 비교를 통해 백제의 특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관련 사료의 부족으로 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신라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잘 드러나고 있어 비교 검토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라는 화랑도 정신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원광의 세속오계는 그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이들 두 국가의 경우 충의·절의 정신은 왕에 대한 忠諫과 전쟁에서의 장렬한 죽음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백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백제는 왕도의 이동에 따라 시기를 한성기·웅진기·사비기로 구분하고 있는

데, 시기별로 정신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후대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비록 사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대별 성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상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빛을 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 백제의 멸망기와 부흥운동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행동의 강도에 있어서도 다른 시기에 비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의와 절의를 행한 인물들은 후대에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유지하고, 국가를 존속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될 것이다.

끝으로 이들 사상의 현대적 계승 필요성과 함께 그 계승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 사고의 팽배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나 도덕적 윤리의식이 부재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전통사상의 현대적 도입이 필요하다. 전통사상 가운데 백제시대의 충의·절의 정신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을 현대에 계승하여 새로운 정신문화로의 재창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백제시대 정신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현존하고 있는 관련 문화재의 정비를 통해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정책제언

백제시대의 충의·절의 정신을 현대사회에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백제시대의 충의·절의 정신은 후대에 귀감이 되어 왔으며, 사회정의를 유지하는데 그 근간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이들 정신은 국가를 존속시키는 이념적 토대가 되며, 한편으로는 사회정의와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현대에 계승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신문화를 현대에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현재 한정된 범위에서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백제시대 정신문화의 계승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1) 백제사상 및 백제시대 충의·절의 정신에 대한 종합적 연구 및 개설서 발간.**

- 백제사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한 정신문화의 사상적 기반 구명.
- 백제시대 충의와 절의정신을 구현한 인물들의 활동상황과 정신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연구결과를 학생 및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설서의 간행이 시급.
- 정기적인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현대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신문화로 재창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논문집 내지는 자료집으로 간행하여 사회교육의 자료로 활용.

**2) 백제사상 및 정신문화의 지속적 연구가 가능한 종합적 연구기능 확보.**

- 백제 정신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능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기반 조성이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백제역사재현단지내의 백제역사민속박물관에 충의·절의관련 전시실을 마련하고, 나아가 충분한 연구 인력과 자료를 확보 하도록 할 것. 또한 새로 설립될 충남역사문화원에도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함.

**3) 관련유적을 정비하여 사회교육을 위한 현장학습장으로의 활용.**

- (1) 충의 관련 유적의 정비 및 활용 - 황산별전적지(청동리산성, 산직리산성, 황령산성, 모촌리산성, 황산성 등 포함) 및 계백장군묘, 부여 팔총리 일대 (팔총사 포함), 부소산 삼층사
- (2) 부흥운동 관련 유적의 정비 및 활용 - 예산 임존성, 부여 성흥산성, 금성산성, 연기 운주산성, 청양 두릉산성 등.
- (3) 절의 관련 유적의 정비 및 활용 -부소산 궁녀사, 낙화암, 보령 도미부인

사당

4) 백제시대 정신문화를 현대적 사상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가치체계로 재창출.

- 백제시대의 충의·절의사상은 현대적 관점에서 그대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현대적 사상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가치체계의 재창출 노력이 필요함.
- 역사학·철학·교육학 등 관련 학문분야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정신문화로의 창출(정기적인 학술심포지엄 개최).

5) 학교교육을 통한 백제 정신문화의 교육.

-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현장 답사를 통해 체험적 교육이 되도록 함.
- 관련인물 탐구를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고, 가능하면 연극 등으로 극화하여 실연함으로써 직접체험의 기회를 부여.
- 전통사상과 현대사상과의 비교를 통한 장·단점 분석 및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재창출.

6)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 관련 자료실 및 토론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

- 현재 백제의 정신문화에 관한 부분은 ‘백제의 종교/사상’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통신앙·유교·도교·불교 등에 관한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물에 대한 것은 ‘백제의 인물’에서 다루고 있는데, 대개 간단한 자료만 소개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 그리고 백제의 부흥운동을 다루고 있는 부분도 없음. 따라서 백제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충의·절의 정신과 부흥운동,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요 인물에 대한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백제시대의 정신문화가 현대사회에서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전제하에 토론의 장을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현대에 맞는 새로운 정신문화로

의 재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수서』, 『주서』, 『구당서』, 『신당서』  
강종원, 「백제 계백의 신분과 정치적 성격」, 『호서사학』, 2000.  
——, 「충청남도 백제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2.  
김경일,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전통윤리 강화방안」, 『한국의 교육과 윤리(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김낙필, 「전통사상과 사회정의의 실현」,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김동화, 「백제시대의 유교사상」, 『아세아연구』 5-1, 1962.  
김영태, 『백제불교사상연구』, 동국대출판부, 1985.  
김익수, 「삼국시대의 윤리사상」, 『한국인의 윤리사상』, 율곡사상연구원, 1992.  
김철준, 「삼국시대 예속과 유교사상」, 『대동문화연구』 67집, 1970.  
민동근, 「백제의 절의정신」, 『백제의 종교와 사상』, 1994.  
송인창, 「백제유학에 나타난 도의정신」, 『백제의 종교와 사상』, 1994.  
신영식, 「한국 고대국가에 있어서의 유교」, 『성신대논문집』 11집, 1979.  
심우섭, 「전통윤리교육의 강화방안」, 『한국의 교육과 윤리(1)』, 정신문화연구원, 1991.  
양기석, 「《삼국사기》 도미열전소고」, 『백제사의 이해』, 학연문화사, 1993.  
유남상, 「백제정신의 역사적 고찰」, 『백제연구』 1, 1970.  
——, 「백제 사상의 연구」, 『백제연구』 특집호, 1982.  
——, 「백제유학의 사상사적 연원」, 『백제의 종교와 사상』, 1994.  
유원재, 『중국정사 백제전연구』, 학연문화사, 1993.  
—— 편,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1996.  
이도학, 『새로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 이병도, 「신라문화의 특징」, 『한국고대사연구』, 1987.
- 이완재, 「삼국시대의 사상과 가치관」, 『한국학입문』, 학술원, 1983.
- 이호영, 「백제패망원인론」, 『박성봉교수화갑기념논총』, 1987.
- , 『신라삼국통합과 여·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일조각, 1984.
- , 『백제사』, 이대출판부, 1994.
- 장덕순, 「충효사상이 현대에 서식할 수 있을까」, 『충효사상』, 단국대출판부, 1977.
- 조홍윤, 「전통사상의 이해와 그 계승문제」, 『전통사상의 이해와 그 계승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채인환, 「백제 불교 계율의 전래와 전파」, 『한국불교학』 11집, 1986.
- 한기언, 「충효사상의 현대적 구현방안」, 『충효사상』, 단국대출판부, 1977.
- 홍순창, 「신라유교의 역할」, 『신라종교의 신연구』, 신라문화선양회, 1984.
- 부여군, 『백제를 빛낸 인물』, 2001.
- 부여군·충남발전연구원, 『21세기를 향한 부여비전 프로젝트』, 1999.
- 충남발전연구원, 『백제 계백 및 팔충신 학술조사보고서』, 2000.
- 충청남도, 『백제의 종교와 사상』, 1994.
- 충청남도,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조사연구보고서』, 1996.
- 호남문화재연구원편,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1999.

■ 집 필 자 ■

강 종 원(姜鍾元)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문학박사(백제사 전공)
- jwkang6311@hanmail.net

기본연구과제 2003-16

## 백제시대 정신문화와 현대적 계승방안 연구

---

발 행 자 : 오 제 직(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발 행 일 : 2003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5-3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42번지

전화 : (042)824-7914

팩스 : (042)824-7817

인 쇄 처 :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 89-89552-24-9 93910

<비 매 품>